

대학생활에 +플러스가 된다!

핵심역량을
UP시키는
비교과 프로그램

SU
With. SUtory
필로그



핵심역량별! 비교과 프로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 후기
슬기롭게 코로나블루 타파하기
학습공동체 참가 팀 인터뷰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체험 후기
삼육마을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참가자 인터뷰
SU-Start UP 창업오디션
참가자 인터뷰

삼육대학교 학과 알아보기

궁금해?
쉬어가는 코너 & 꿀팁 ZONE
학과 특집편!
혹시 이런 학과 들어봤어?
우리 대학을 빛내는 학과!



SU필로그란?

수토리 운영단이 제작한 '수필로그'는 SU(삼육대)/SUtory(수토리)와 Epilogue의 합성어로, 시나 소설 등의 맛을 부분이라는 에필로그의 뜻과 같이 2021학년도 대학생들 정보를 끝맺음하는 의미이다.

2021학년도



삼육대학교 수필로그 _ With. S.Utory

발행처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기획/편집 교육혁신원 김유진
 제작 수토리 운영단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전화 02-3399-3080
 홈페이지 www.syu.ac.kr

소통 및 자기주도 역량

- 04 핵심역량이란 무엇일까 | **작성자: 모정연**
- 05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개
- 06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 후기
- 10 소통 역량 | **작성자: 김진경**
- 11 슬기롭게 코로나블루 타파하기
- 13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소개
- 14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터뷰
- 16 자기주도 역량 | **작성자: 방준희**
- 17 학습공동체 참가 팀 인터뷰
- 21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 **작성자: 박성천**
- 23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체험 후기

시민의식 및 나눔실천 역량

- 24 삼육마을 프로젝트 | **작성자: 김혜인**
- 25 삼육마을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 26 CM 인터뷰

글로벌 역량

- 32 글로벌 역량 프로그램 소개 | **작성자: 이가림**
- 33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소개
- 34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터뷰

창의적사고 역량

- 36 SU-StartUP 창업오디션 | **작성자: 신정현**
- 38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인터뷰



궁금해?

- 40 환경디자인원예학과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 모정연**
- 44 사회복지학과를 소개합니다
- 48 학우들의 뒤에서 든든하게 빛나는 SYUPHARM STAR | **작성자: 김진경**
- 52 신설학과 항공관광외국어학부, 그것이 알고싶다!

쉬어가는 코너 & 꿀팁 ZONE

- 60 너의 학과가 궁금해! With 간호학과 | **작성자: 방준희**
- 63 슬기로운 대학생활 With 보건관리학과
- 64 음악학과 재학생 인터뷰 | **작성자: 박성천**
- 66 동물생명자원학과 재학생 인터뷰



74

IT'S TO BOOST YOUR CORE SKILLS. A COMPARISON PROGRAM.

학과 특집편!

- 68 교직이수 학과 특집 | **작성자: 김혜인**
- 69 상담심리학과 교직이수생 인터뷰
- 72 영어영문학부 졸업생 '호남삼육중학교 선생님' 인터뷰

혹시 이런 학과 들어봤어?

- 74 한국학 전문가 양성 학과 글로벌한국학과 | **작성자: 이가림**
- 80 글로벌 아티스트 양성 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
- 86 두 학과를 연계한 한류콘텐츠 연계전공

우리 대학을 빛내는 학과!

- 89 식품영양학과 수상 언론보도 학생팀 인터뷰 | **작성자: 신정현**
- 95 복수전공 많은 학과 경영학과 전공필수!

핵심역량이란 무엇일까?



<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란? >

집단 상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 향상, 자아성장, 대인관계, 진로, 스트레스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써 학생상담센터 주관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시행 날짜는 10월11일 온라인으로 진행으로 진행하였으며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 상시로 프로그램 운영 중이니 다음 기회에 참여를 권장 드립니다.

삼육대학교 6대 핵심역량에 대하여 알아보셨나요?

삼육대는 지난 2017년 대학 인재를 '삼육 MVP(Mission·Vision·Passion) -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로 정립하고, 시민의식, 소통,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글로컬, 나눔실천을 6대 핵심역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핵심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자체 진단도구인 SUMVP-CCA(Core Competencies Assessment)를 개발해 매년 2차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평가는 삼육대 핵심역량 통합시스템에서 이뤄지며,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행동특성과 관련한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공교과, 교양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졸업 전까지 6대 핵심역량을 골고루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역량이 낮게 측정되면,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핵심역량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역량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6대 핵심역량에 대하여 수utori 운영단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씩 다른 핵심역량을 맡아 소개를 할 예정이니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6개의 핵심역량에서 '소통 및 자기주도 역량'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서 장기성을 가진 세부 프로그램, 학생상담센터의 '집단상담'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개



1. 원예/미술치료와 마음돌봄

- 신청기간 : 2021-08-20~2021-08-30
- 참여기간 : 2021-09-06~2021-10-04
- 참여방법 : ZOOM 활용



2.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넌 누구니?

- 감정이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 신청기간 : 2021-09-01~2021-09-20
- 교육기간 : 2021-09-23~2021-09-24
- 참여방법 : ZOOM 활용



3.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넌 누구니?

- 감정이해집단상담 프로그램
(명상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감정, 생각 등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대로 바라보는 경험의 시간)

- 신청기간 : 2021-09-02~2021-09-27
- 참여기간 : 2021-09-30~2021-10-01
- 참여방법 : ZOOM 활용



4. MBTI-Q 집단상담 프로그램

- 신청기간 : 2021-10-21~2021-11-01
- 참여기간 : 2021-11-08~2021-11-10
- 참여방법 : ZOOM 활용



5.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집단상담 프로그램

- 신청기간 : 2021-10-26~2021-11-10
- 참여기간 : 2021-11-15~2021-11-22
- 참여방법 : ZOOM 활용

* 2021학년도 2학기 10월, 11월 진행 프로그램 일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프로그램 참여 후기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번 SU-Pilogue를 발행하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가깝게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단순히 정보 소개만 나열하는 것은 많은 재학생분들의 흥미를 유도하지 못할 것 같았으며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참여 또한 유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전부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비교과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선 상담을 위해 병원을 찾거나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변화했고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SU-Pilogue'에 그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후기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니, 저의 후기를 보시고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그대로 안고만 가는 일상보다 털어놓고 더 활기찬 내일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프로그램 참여 이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인관계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회적 관계 중에서는 제가 불편하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제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굉장히 힘든 감정을 느꼈고, 이런 힘든 상황을 상담으로 통해 해소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2 진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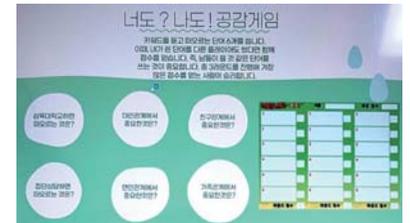
- 2021. 11. 15 (월) 13:00~15:00에 참여하였습니다.

- 첫 번째 시간에는 공감게임, 별명 짓기, 나의 친구관계도, 불편한 관계 탐색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공감게임이란 PPT에 제시된 6개의 지문을 듣고 떠오르는 키워드를 각자 적는 것입니다. 그 후 자신이 무엇을 적었는지 발표를 할 때 다른 분도 그 키워드를 적었다면 자신도 적었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공감을 많이 받은 사람을 '공감 왕'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임입니다. 시간 관계상 6개 중에서 대인관계, 가족관계, 집단 상담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옆의 사진은 제가 공감게임을 하며 적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옆에 보이는 숫자는 제가 얼마나 공감을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어떤 별명으로 불리고 싶은지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성격을 담은 동물로 하기도 하였고 저는 저의 이름을 딴 '모모'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 세 번째는 친구 관계를 탐색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대인관계(친구)를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싶은지 자유롭게 구상하면 됩니다. 저는 4명의 친구를 적었는데 저와 마음이 맞는 친구는 하트로, 안정감을 주는 친구는 동그라미로, 웃음을 주는 친구는 웃음 캐릭터로, 부모님은 안정감과 사랑을 나타내는 하트와 동그라미로 그려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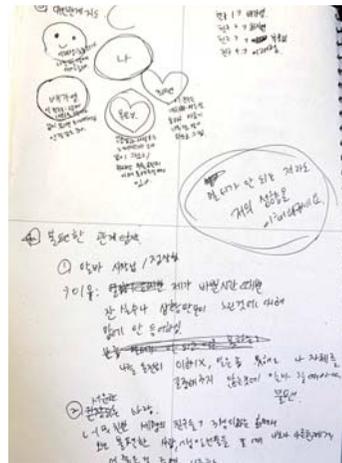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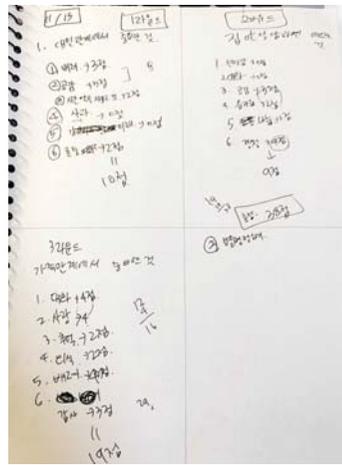
- 마지막으로 불편한 관계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불편한 관계 혹은 사람을 적어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에서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의 점장님, 사장님과와 마찰 때문에 힘든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들어온 직원에 비해 간 실수가 많은 저에게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저를 맘에 안 들어 하신다는 마음이 표정에 다 나타나는 것이 저에게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나 불편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 이렇게 서로서로 발표를 하면서 많이들 공감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도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겪었던 불편한 상황에 대해 말해주고 공감해 주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프로그램 2차시는 11. 29. (월) 13:00~14:30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2차시 수업에서는 감정빙고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빙고를 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25개의 빙고판으로 만들고 부정적 감정은 16개의 판을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느끼고 있는 긍정적 감정이 많이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은 금방 16개를 채울 수 있어서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빙고 후에 저희는 각자 관계에서 불편했던 점이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친구관계에서 느낀 불편감을 말해보았습니다. 3명에서 어울려 다니는 그룹에서 한 명이 유학을 가게 되어 마지막으로 밥을 먹게 되었고, 한 명이 밥을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산할 때 그 유학 가는 친구의 밥값만 계산하는 모습에 서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의 충격을 얘기하니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위로의 말도 해주시고 같이 서운했던 마음에 공감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는 서로의 말을 듣고 공감 실습을 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3 좋았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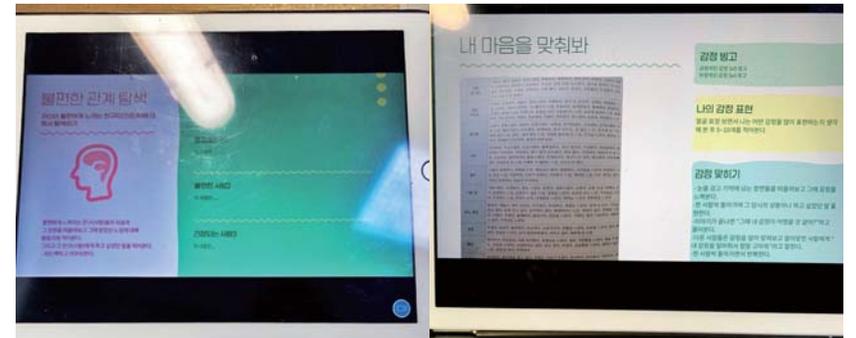


너무나 후련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불편한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이렇게 말로 꺼냄으로써 털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을 꺼냄으로써 후련함을 느꼈고 진행해주시는 선생님께서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장과 점장님의 꾸짖음에도 제가 무너지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공감을 해주는 분위기에 힐링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관계를 주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항상 마음 속 깊숙이 숨겨 놓았던 서운함들을 다 꺼내고 나니 다시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4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점



저는 성격상 제가 고민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털어놓지 못합니다. 저의 우울한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비춰지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털어 놓을 때도 마음 속의 병이 100이라면 10밖에 말하지 않고 항상 끝은 '괜찮아, 잘 되겠다'라며 듣는 사람을 오히려 더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로 제 마음 속 깊이 있던 불편한 감정을 털어 놓는 연습을 함으로써 제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기댈 곳 없다고 느꼈는데 '나만 경험을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구나.'하는 동일감으로부터 얻는 공감은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고 표정으로 공감해주시니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민을 털어 놓는 힘을 배웠고 저 혼자만 모든 것을 안고 가려는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1:1 개인 집중 상담이 아닌 서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공감이 주를 이루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고민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경험 나누기를 하면서 마음 속 응어리를 조금 내려놓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말로 꺼내 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으로 다가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6 프로그램 추천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의 학과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정말 풍부한 경험을 듣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학과나 학년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든 시간이 된다면 가볍게 참여하길 추천합니다. 특히 가장 추천하고 싶은 대상자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어렵게 느끼는 재학생분들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한 번 도전하고 싶는데 너무 복잡해 보인다면 그 첫 도전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소통 및 자기주도 역량

“소통”

비교과프로그램은 MVP교육의 일환으로 정규교육과정 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및 활동을 뜻한다. 정규교육과정을 보완 및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통해 6대 핵심역량을 증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중 '소통'역량은 MVP 중 Mission에 속하는 역량으로, 각 부서에서 재학생들의 소통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학년도 2학기 소통 역량 관련 비교과프로그램 일부 소개



학습공동체 / 교육혁신단

- 목표 달성을 위한 정기적인 학습활동으로 학습자 간 학습경험을 공유하여 자기주도 역량과 의사소통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팀 활동 프로그램
- 스터디룸, 다과, 수료 장학금 지원

#의사소통의힘 #뽕뽕한혜택

CLT-삼육메이트/ 교육혁신단

- 메이트의 학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같은 학과 학생이 짝이 되어 학교 생활 및 전공 학습을 일대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학습지원 #멘토링 #짝공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너 누구니? : 감정이해 집단상담 프로그램 / 학생상담센터

- 영상 전문가와 함께 나의 감정, 생각 등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대로 바라보는 경험의 시간
- zoom 활용한 2회기 프로그램

#집단상담 #자아정찰 #도덕토닥 #나다워지기

삼육WACII(범교과글쓰기) / 스미스학부대학

- 재학생 글쓰기 역량 향상을 위해 교과목 교수자가 제시한 논술형 과제를 전문 튜터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글쓰기능력향상 #A+각?



소통 및 자기주도 역량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슬기롭게 코로나블루 타파하기

코로나19 이후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신조어 중 하나인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런 코로나 블루를 학생들이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보내게 해준 기특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상담센터에서 2017년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학생상담센터를 '상담'의 차원을 넘어 학교에서의 '심터'같은 존재로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코로나블루를 타파하고 통제된 대인관계를 회복하며 제한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정보



원예치료 맛보기

- 방울토마토 모종 기르기-

방울토마토 모종 기르기 활동을 통한 원예치료 활동

실시일 21.05.06



미술치료 맛보기

- 타일냄비반침 만들기-

타일냄비반침을만들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

실시일 21.06.03



독서 맛보기

- '점'을 읽어보자-

'점'이라는 그림책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감정표현을 향상시키고 힐링하는 시간

실시일 21.06.22



사진치료 맛보기

- 내가 좋아하는 곳을 소개합니다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장소의 사진을 소개하고 의사 소통하며 긍정적 효과를 공유

실시일 21.07.06



그림치료 맛보기

- 명화따라그리기 -

각자 행복한 기억의 장면을 떠올려보고 해당 장면을 스케치하고 채색하며 긍정정서 중 어떤 정서를 강화 시키고 싶은 지 알아가는 과정을 체험

실시일 21.07.16



영상치료 맛보기

- 영화보고 느낀 점 나누기 -

영화 매체에 대한 본인의 선호도를 공유하고, 영화 감상 이후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감상평과 개인의 심리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짐

실시일 21.08.17



마음돌봄 맛보기

- 감정일기장 쓰기 -

감정일기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서로 간의 감정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실시일 21.09.27



요리치료 맛보기

- 감사의 케이크 만들기 -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통해 평소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감사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체험

실시일 21.10.28



마음의 정원

원예치료 맛보기

- 테라리움 만들기 -

현재의 마음 상태를 상징할 수 있는 또는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테라리움을 꾸미는 체험

실시일 21.11.15



열린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준비된 학생상담센터 체험형 프로그램

실시일 21.11.30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Sü 만족도 조사 결과



Sü 참여자들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 | | | |
|---------------------------------------|---------------------------------|--|
|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 | "서로 간의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뜻깊은 시간" | "마음가짐을 재정비하는 시간" |
| "경쟁중심의 여유가 없는 사회에서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 |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시간" |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줌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 |

학생상담센터는 비대면 프로그램뿐 만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선물'이라는 주제로 대면 체험형 프로그램 '열린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도 학생들의 든든한 쉼터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고민하는 학생상담센터 교직원분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든든한 쉼터가 되는 학생상담센터가 되길 바란다!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21학번 환경디자인원예학과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

Q2.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셨나요?

A1. 원예치료 맛보기, 독서치료 맛보기, 사진치료 맛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Q3.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1. 방울토마토를 키워보고 싶었는데 원예치료에 방울토마토 키우기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고, 독서치료, 사진치료는 어떻게 독서와 사진으로 치료를 하는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4. 각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 어땠나요?

A1. 원예치료는 방울토마토를 심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독서치료는 '짐'이라는 책을 읽고 내용을 예측하고 이유를 서로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치료는 장소를 소개하며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Q5. 새내기라 이런 비교과프로그램이 생소했었는데,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셨나요?

A1. 수특 알림을 자주 확인하는 편이라 수특을 통해 알게 되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참여했습니다!

Q6.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1. 요즘같이 사람들과의 접촉이 드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Q7. 다른 비교과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만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A1. 다른 비교과프로그램은 청강만 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이 많은데,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은 타인과의 접촉이 있어 이게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

Q8. 당시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다면 학우분들에게 자랑해주세요.



Q9. 어떤 학우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A1. 저처럼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서 답답하거나, 무엇인가를 키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원예치료 맛보기를,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독서치료 맛보기를,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사진치료 맛보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음악학과 재학 중인 3학년 장환이라고 합니다.

Q2.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셨나요?

A2. 원예치료 맛보기(방울토마토 키우기), 요리치료 맛보기 2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Q3.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3. 1학년 때는 비교과프로그램 자체를 몰랐는데 2학년 때 학교 홈페이지를 구경하다 우연히 비교과통합 시스템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재밌어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예 치료 맛보기? 심지어 방울토마토 키우기?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서 신청했고, 요리치료 맛보기 또한 요리가 케이크? 너무 맛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기대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Q4. 각 프로그램 진행 방식이 어땠나요?

A4. 일단 강의를 신청한 후에, zoom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준비물이 있었는데 지방에 학생분들은 택배로 받았고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케이크 밀키트를 받으러 학교 상담센터로 직접 찾으러 갔습니다. 또한 zoom 수업을 하면서 서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번 주제는 '감사' 였는데 감사로 이행시킴, 감사한 분들 떠올리기, 감사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케이크 만들기, 감사한 분들에서 연락하기 등으로 감사와 연관지어서 프로그램이 진행했습니다.

Q5.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5. 무엇보다 음식과 같이 상담을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상담도 재밌긴 하지만 음식을 활용해서 하나가 집중도 잘되는 것 같고 시작 전부터 어떻게 만들까 기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재밌게 잘 만들고 맛있게 먹을 수도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Q6. 다른 비교과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만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A6.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항상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궁금증을 더 많이 갖고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Q7. 당시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다면 학우분들에게 자랑해주세요.



Q8. 어떤 학우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A8. 학교 생활을 더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싶다 라는 학우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은 학우들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기주도역량 비교과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명 SU-학습관리 - e포트폴리오 Sutory(수토리)

- 운영기간** 상시
- 주요프로그램** 수토리 공모전/이벤트, 수토리 운영단
- 참여내용** Sutory 사이트에서 e포트폴리오 작성 및 관리
Sutory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 게시물 업로드
Sutory 사이트 운영/지원
- 참여혜택** 프로그램에 따라 참가 기념품, 수상 장학금, 활동 지원비, 활동 수료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명 SU-학습역량강화 - 학습공동체

- 신청기간** 개강 전 약 2주간 사전 신청(2022년 기준)
- 수료기준** 15회차(최소 20시간)의 팀 활동 보고서 제출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수료혜택** 수료 팀 장학금 지급(우수 30만원, 일반 20만원)
- 운영기간** 한 학기(약 4개월)
- 인원제한** 최소 3인 이상 팀
- 그 외 혜택** 전용 스튜디오 룸 및 다과 제공



프로그램명 SU-학습역량강화 Step-Up 멘토링

- 신청기간** 개강 전 2주간 사전 신청(2022년 기준)
- 수료기준** 15회차(최소 20시간)의 팀 활동 보고서 제출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수료기준** 멘토와 멘티 각각 총 15회차보고서 제출
- 수료혜택** 수료 장학금 지급(우수 30만원, 일반 20만원)
- 그 외 혜택** SU-굿즈 스튜디오 플래너 제공



자기주도 비교과프로그램_학습공동체

with_ team 최강보건

Q1.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리더 저희 팀명은 학과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름, 입학 때부터 최강보건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최강보건으로 정했어요!

Q2.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리더 제가 학업에 욕심이 많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내가 이끌어서 이 친구들의 학업성적도 같이 올려보고 싶었고요. 결정적으로 스튜디오를 지원해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3. 팀의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팀원A 지금하고 있는 과목이 의료정보관리학, 행정법총론 A학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의학용어2도 틈틈이 병행하면서 단어시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Q4. 팀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낀 적이 있나요?

리더 저희는 각자 복습을 해오고 정리가 잘 된 사람이 나서서 쪽 스토리텔링 하듯이 팀원들에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스토디를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 학습공동체를 시작했을 때는 팀원들이 많이 속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의 목표는 성적향상임을 상기시키며 이끌었더니, 수업시간에 교수님들이 질문하시면 팀원이 대답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팀이 많이 성장했구나'를 실감했던 것 같아요.

팀원A 저는 사실학습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학습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주차별로 스토디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안 하면 스토디에 피해가 가니 복습도 철저하게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쌓이다 보니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 스스로도 뿌듯하다고요.(웃음)

Q5.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있나요?

팀원B 네 완전이요. 성적향상이 목표니까 제가 이것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끌어 준다해도 제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의지도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Q6. 팀 활동 과정에서 힘들었거나 위기가 온 적이 있나요?

리더 사실 없어요. 저희가 원래 학습공동체를 하기 전부터 자주 학교에 나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

팀원A 잠깐!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학교는 나왔지만 공부는 안했어요! (웃음)

리더 학교를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 공부는 안 하길래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해서 이번 학습공동체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너무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팀원들이 잘 따라와줘서 마찰은 없었던 것 같아요.

팀원A 개인적 고민으로 3주차 때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팀원B 맞아맞아, 괜히 했다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팀원A 아아.. 그런건 아니고요. 안 하던거 하려다 보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극복했습니다!

Q7. 팀 분위기는 어때요?

팀원A 저희 팀원들은 셋 다 활발한 성격이고 MBTI가 E로 시작해서 잘 맞아요. 그래서 사적으로 보면 정말 편하고 좋은데 스테디 할 때는 리더가 무서운 편이에요.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해오지만, 덜 해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리더가 정확하게 케치해더라고요. (웃음)

Q8. 학습공동체의 장점이 있을까요?

팀원A 학습공동체의 장점은 또래의 눈높이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팀원B 학습공동체에서 형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룹마다 자율적으로 커리큘럼을 짜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Q9. 팀원들끼리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팀원A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한 번도 스테디를 쉬거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공부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중간고사 끝나고 놀았어요! 저희는 이렇게 한 번씩 놀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Q10. 중간고사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나요?

팀원B 네!! 제가 지난 학기에 한 교수님 교양수업을 망했는데, 이번에는 몇 문제 더 풀었어요! 아는 것도 나오고, 시험 마치고 동기들이랑 오답확인 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더라고요.

팀원A 결과로만 봤을 때 '몇 점이나'를 떠나서 내가 개념을 숙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어요.

Q11. 팀 내에서 지켜야할 규칙이 있을까요?

리더 저만의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자각을 자주해요.. 그래서 20분 정도 늦을 경우에는 팀원들에게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팀원A 저희가 스테디 진행을 여유롭게 해서 서로의 양심에 맡기는 편이고 서로 민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Q12. 우리 팀만의 장점이 있나요?

팀원A 조직력? 리더의 당근도 있고, 팀원들이 군말 없이 잘 따르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팀원 자체가 장점인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할 생각이 있어요.

Q13.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면, 어떤 학우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리더 어색한 사이인 경우 각자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강한 의지만 있다면 수월하지 않을까요?

팀원A 인원은 저희처럼 4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아지면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것 같고요. 더불어 모이는 그룹이 있다면 팀원들의 의지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리더가 노력해도 팀원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요.



자기주도 비교과프로그램_학습공동체

with team 알리트밍

Q1.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주영 팀명은 알리트밍(alitement)입니다. 세 명 모두 간호학과이다 보니, 간호학과와 관련된 외국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찾던 도중, 프랑스어에 관심이 있던 팀원의 제안으로 선정하게 되었어요.

*사전적 의미 : (환자를) 자리에 눕힘

정아람 처음에는 친구가 같이해보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공부도 잘되고 언어가는데 많아 지금은 2년째 학습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Q2. 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정예슬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환경에 있다보니 자유로운 대학 분위기에서 학습적인 부분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졌어요. 마침 학교 공고에 올라온 학습공동체에 대한 글을 동기가 발견했고 함께 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마냥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것으로 생각했던 저는 코로나 인해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학과 특성상 성적을 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성적도 올리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Q3. 학습공동체의 장점 2가지만 소개해주세요.

정아람 첫 번째 장점은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형태이다 보니 나타해지기 쉬운데 학습공동체는 매우 꾸준히 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사실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는데 스테디룸을 빌려주시고 매번 간식도 잘 챙겨 주셔서 편안한 장소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시험기간에도 항상 맛있는 간식을 잊지않고 지원해 주셔서 힘을 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4. 팀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강주영 2년 동안 학습공동체를 해오면서 가장 큰 보람은 공모전 참여를 통해 수상을 했을 때입니다. 새로운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전이었습니다. 팀원 모두 꾸준한 학습공동체를 해오고 있어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고, 정해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영상과 PPT를 만들어 제출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었기에 더욱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학기말 성적이 향상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취도 보람이지만, 공극적인 목표는 성적향상에 있기에, 지난번보다 성적이 향상된 것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Q5. 팀원들끼리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나요?

정아람 저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부분 다같이 힘들어 하기 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힘들어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파이팅! 할 수 있어" 등의 말로 힘을 넣어주곤 해요. 가끔씩 너무 지칠때면 각자 뮤지컬이나 여행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버티곤 해요. 무엇보다도 같이 고생하는 친구들이 가장 큰 힘이 되더라고요.

Q6. 원활한 팀 활동을 위해 지켜야할 규칙이 있나요?

정예슬 딱히 어떤 규칙이나 룰을 만들지 않아도 잘 참여하여 성과를 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따로 규칙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굳이 생각해보면 서로 빠르고 명확하게 일정을 공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보고서를 밀리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암묵적인 규칙 중 하나인데, 저희 팀은 돌아가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헛갈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린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보고하고 있어요.

Q7. 우리 팀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예슬 '알리트멍'만의 장점은 강주영, 정아람, 정예슬 이렇게 세 명의 팀원이 함께한다는 점이에요(당당!) 주영이는 바쁜 와중에도 늘 세심하게 일정을 관리하고 공지를 해주는 훌륭한 팀장의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일정과 앞으로 남은 활동시간을 기록하고 단독 방에 활발히 공지해주는 역할을 맡아 잊거나 놓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아람이는 필요한 자료나 아이디어뱅크의 역할을 합니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자신이 가진 장점으로 팀을 하나로 만드는 데에 능력자인 것 같아요.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나 의견이 나오더라도 적절한 절충안을 생각해주는 점은 저희 팀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구들이 모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팀원들의 시너지가 알리트멍의 활동을 여유롭지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해요. (원래, 팀원이 좋으면 그 팀은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Q8. 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정예슬 사실 단순하게 함께 공부할 동기들이 필요해서 시작한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목표나 목적지 없이 활동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이자 목표였다고 느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공학습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휴학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의 자극제가 되어주는 동시에 뒤쳐지는 친구를 끌어주고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알게 된 듯해요. 이제는 단순 전공학습을 넘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팀이 되고자 해요. 늘 경쟁적인 성적 관리와 스트레스에 싸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전공 수업을 넘어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경쟁 중심의 학습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Q9.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면, 어떤 학우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정아람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 좋은 공부 매이트를 만들고 싶으신 분~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

강주영 함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우, 꾸준한 활동을 통한 자기관리에 관심이 있는 학우에게 추천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대학교에 오면서 우리는 성인이 된다. 표면적으로 부모님이라는 보호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며 내 삶을 이끄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다고 준비와 과정 없이 바로 자기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남과의 비교, 주변 시선 의식, 사회적 압력 등으로 온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끄는 자기주도 역량을 키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교에선 교과과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공 수업을 많이 듣게 되며, 누군가 알려주는 지식을 머리에 넣기 바쁘다. 그래서 삼육대학교는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부족한 역량들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온전히 자기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기주도 역량 비교과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기주도 역량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2021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
나를 브랜딩하는 스피치 기술

- SNS 스피치 연구소 대표 명명
- 2021. 12. 20(월) 18:00 - 19:50 / ZOOM 공연
- 스피치로 나를 브랜딩할 방법
- 말치 않고 말하는 스텝
- 소품 활용하는 말하기
- 연필리지 20명, 4명용 1개 지급
- 신청 기간: 11. 23(화) ~ 12. 03(목)

취업진로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s://nugil.syu.ac.kr>
 취업진로정보센터 02-3399-3233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여대생특화프로그램
 경험으로 증명하는 여성 리더십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여대생특화프로그램

행사 2021. 11. 16(화) 15:00-17:00
 신청기간: 9. 23 일까지

주요 2021년 동아리활동 우수 동아리 선정 시상식
 동아리 활동 우수 동아리 시상식

신청: 취업진로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s://nugil.syu.ac.kr>
 취업진로정보센터 02-3399-3233

2021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현대의 JOB(직장)에 어울리는 여대생이 되기 위한 방법

신청기간: 10. 26(화)까지

11월 17(수)~18(목)
 11월 17(수)~18(목) 19:00~21:00
 11월 17(수)~18(목) 19:00~21:00
 11월 17(수)~18(목) 19:00~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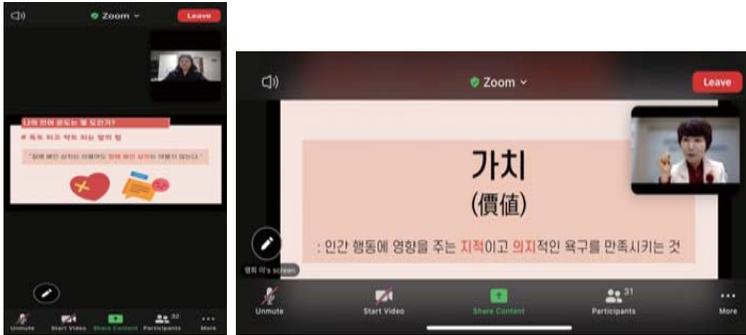
신청: 취업진로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s://nugil.syu.ac.kr>
 취업진로정보센터 02-3399-3233

나를 브랜딩하는 스피치 기술

경험으로 증명하는 여성 리더십!!

디지털시대의 여성리더가 되는 법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나를 브랜딩하는 스피치 기술' 체험후기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매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임금 격차, 기업 내 임원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10개 항목 포함해 직장 내 여성 차별 수준을 지표화한 '유리천장지수'를 집계해 발표하는데 한국이 9년 연속 꼴찌라고 한다.

이에 삼육대학교 비교과프로그램 중 자기주도 여대생 특화프로그램은 여대생들이 여성리더십 신장 및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여성 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변화의 시대에 소통, 공감, 배려의 여성적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여성들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장을 마련한다.

강의를 들으며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여대생 특성화 프로그램은 여대생에게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지, 남대생이 들으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여대생뿐 만 아니라 남대생도 충분히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들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타 학교에 비해 이렇게 다양한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어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에서 줌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자기주도 역량 여대생 특화프로그램 체험후기

자기주도 역량 프로그램 신청인원을 확인해 보면, 취업할 때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과정이 인원 초과가 되고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자기주도 활동이다. 대학교 졸업만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전공수업뿐 만 아니라 기술/언어 관련 자격증, 대외활동 등 경험을 쌓고 실력을 입증해야 하고, 이는 대학교 밖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삼육대학교에서는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자기주도 경험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있다.

삼육대학교 학생들은 여대생 비율이 높지만, 과학 및 ICT 관련 학과에서의 여대생 비율은 현저히 적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로보틱스, 메타버스 등의 산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성도 공학도, 엔지니어로 꿈꿀 수 있도록 코딩, C+언어 및 IT관련 자기 주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문과 및 예체능 전공 여대생 비전공자**도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4차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따라서 인기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더 많은 신청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최근 시, 코딩, 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 관련 분야의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개설이 되길 희망한다.



삼육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시민의식 & 나눔실천 역량' 〈삼육마을프로젝트〉

삼육마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삼육마을 프로젝트란?

인성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삼육대학교 재학생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팀프로젝트

프로젝트 목적

- 학생들이 개발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더하여 사회적 기업창립 실현
- '돌봄 경제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 사회봉사 교육이 아닌 '돌봄 경제 일자리' 창출

웰빙 보따리
프로젝트

드림세탁
프로젝트

장애아동
드림멘토
프로젝트

시민의식 및 나눔실천 역량

삼육마을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 프로젝트명** 드림세탁 프로젝트
- 프로젝트 내용** 독거노인 분들과 지체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거동의 불편함과 고독한 마음을 이해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돕기 위한 돌봄 서비스
- 주요 활동** 이불빨래, 세탁물 배달, 화장실 청소, 장보기



- 프로그램명** 웰빙보따리 프로젝트
- 프로젝트 내용**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장보기 서비스를 병행하며 식사 문제 해결과 건강 상태도 확인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
- 주요 활동** 혈당 체크 및 혈압 측정으로 건강 상태 확인 (반찬 식단표 작성 / 반찬 제공 / 안부확인)



- 프로그램명** 장애아동 드림멘토프로젝트
- 프로젝트 내용** 장애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아동과 발달장애아동 맞춤형 1:1 멘토멘티 서비스
- 주요 활동** 진로탐색활동, 학업능력증진활동, 문화여가체험, 건강 체력 증진활동



CM 인터뷰

드림멘토 프로젝트 기획하고 진행한 썰 푼다

드림멘토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CM 본격 인터뷰

Q1. 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A1. 대학교 1학년 때 프로젝트를 처음 알게 되어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다가 2학년 때부터 활동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장기적으로 봉사하려고 했고, 프로젝트에서 직접 수혜자를 선정하고 기획하는 과정이 흥미롭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Q2.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A2. 프로젝트 CM은 1년간 활동했고, 서포터즈는 총 1년 반 동안 활동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노원구, 중계동 대상으로 서비스를 했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독거노인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보다는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혜자 독거노인 분들은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감정적인 소통을 원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Q3. 삼육대학교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일상 속 작은 '시민의식'이 있다면?

A3. 수혜자들이 주로 독거노인이었어요. 저도 원래 노인을 떠올리면, 대화가 잘 안 통하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고집이 있는 등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편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삼육대학교 학우들에게는 편견 없이 노인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 속 작은 시민의식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Q4.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나요?

A4. 수혜자분들께 드림세탁 서비스를 제공한 뒤, 다시 안부인사를 목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프로젝트가 수혜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Q5. 드림세탁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혹은 에피소드는?

A5. 첫 번째로는, 팀에서 3번 정도 방문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방문할 때마다 두유나 초콜릿 빼빼로, 비타민 등을 항상 손에 쥐어주셨어요. 활동 마지막에는 용돈을 주셨는데 이 건 차마 못 받아서 다시 드리고 왔는데, 그 때 그 할머니의 마음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 나가 직접 홍보하는 중, 아파트 정자에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홍보를 진행했어요. 그 때, 3~4분께서 줄을 서서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시간약속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았는데, 이 때가 가장 뿌듯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Q6.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해와 스터디도 함께 진행하는데, 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A6. 보통 전문가 선생님께서 교육 특강을 해주시고, 서포터즈가 미리 스터디 해온 것을 함께 논의하고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스터디는 일반적으로 듣는 강의가 아니라 자유롭게 흥미롭게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활동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스터디를 할 자료를 토대로 다같이 서치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스터디는 서비스 나가기 전 준비 단계로서, 총 5~6차례 정도 진행합니다.

Q7. 2020년에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구상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1년 넘게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던 원동력이 있다면?

A7. 정확히는 2020년도에 활동한 상을 올해 수상하게 되었어요. 처음 서비스를 기획할 때는 한 학기 정도로 생각하고 직접 팀원을 꾸렸는데, 욕심이 생기자 보니 4~5명이어도 되는데 10명까지 꾸리게 됐어요. 팀원이 많다 보니 책임감이 커졌고 많은 팀원들이 서비스를 경험해봤으면 하는 마음과, 팀원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면에서 책임감을 느꼈고, 이 책임감이 1년 넘게 활동한 원동력인 것 같아요.

CM 인터뷰

웰빙 보따리 프로젝트 기획하고 진행한 썰 푼다

웰빙보따리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CM 본격 인터뷰

Q1. 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A1. 미안마 봉사를 다녀온 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웰빙보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안마 아동들이라 말도 안 통하지만 봉사를 기다려주고 아동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때의 경험을 토대로 2019년 2학기에 같이 봉사를 다녀온 선후배와 함께 독거노인 대상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동을 대상으로만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궁금하기도 했고 미안마 봉사를 계기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Q2.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은 점이 있나요?

A2. 독거노인분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비스 나가기 전에 인성교육원에서 들은 교육 중에 '제공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수혜자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간 타협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존에 알던 봉사는 노동을 해야만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봉사라는 게 노동은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수혜자분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Q3. 삼육대학교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일상 속 작은 '시민의식'이 있다면?

A3.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봉사하면서, 겉으로는 안 보여도 여러 지병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시는 분인데, 속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길에서 말짱하게 걸어가시던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부축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 말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삼육대학교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일상 속 작은 시민의식'은 굳이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길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들을 돕는 배려입니다.

Q4. 웰빙보따리의 경우 수혜자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반찬을 제공하는데, 주로 어떤 반찬을 제공하나요?

A4. 수혜자분들이 어르신이다 보니 다 건강한 편은 아니세요. 배가 안 좋은 분들도 많아서, 주로 칼슘이 풍부한 반찬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요. 멸치나 새발나무무침반찬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도 많아서 콩, 견과류, 채소류 반찬을 제공하고 있어요.



Q5. 반찬 식단표를 작성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A5. 반찬 식단표를 작성할 때는 수혜자분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혜자분들을 대면할 때, 지병이나 못 먹는 음식을 미리 조사해서 반찬가게에 해당 반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혜자분들이 지병에 따라 좋은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직접 검색해보고 추천하거나 식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6.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웠을텐데, 2년 동안 진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계기는?

A6. 지난 2019년도에 대면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보람을 원동력으로 2년 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할 때는 반찬 배달만 만 아니라, 수혜자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확인하고 혈당체크도 같이 진행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반찬만 제공했고, 전하고 싶은 말은 쪽지를 건네기만 했어요. 또한 독거노인분들은 혼자 계시면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서 치매 예방 그림책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도 하고 있어요. 대면 활동에 비해서는 직접 마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지만, 서비스가 끝날 때마다 슬퍼하시는 수혜자분들을 보며 비대면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어요.

CM 인터뷰

장애아동 드림멘토 프로젝트 기획하고 진행한 썰 푼다

수토리 운영단 | 김혜민

장애아동 드림멘토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CM 본격 인터뷰

Q1. 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A1.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쪽 장애인 봉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장애인을 돕고자하는 마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제 전공도 사회복지학이다 보니까 전공 수업을 들으며 장애인을 돕는 일이 내 적성에 맞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같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순 없지만, 멘토로서 아동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 싶어 이렇게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Q2. 프로젝트를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A2. 발달장애아동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난 5명의 아이는 모두 개성과 성격, 좋아하는 것이 달랐어요. 발달장애 아동처럼 안 보이는 친구도 있었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전에는 저도 모르게 '발달장애아동은 이렇어야' 라는 편협한 시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도 비장애아동들처럼 똑같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장단점과 생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에 대해 더욱 이해하고 존중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을 이해하는 시각이 더 넓어졌어요.



**Q3. 삼육대학교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일상 속 작은 '시민의식'이 있다면?**

A3. 제가 일곱빛이라는 장애인 봉사 동아리 회장으로 있는데 매주 봉사를 하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때 자신의 삶도 더 나아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봉사는 봉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해 하는 행위 중 가장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칼 매닝거라는 분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준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 모두 치료를 받는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말처럼 시민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랑과 봉사를 받은 사람이 많아져 자신이 받은 사랑과 봉사를 나누며 다른 사람을 돕는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내어 봉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4. 드림멘토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A4. '튜브벨 풍경 만들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활동은 문에 걸 크리스마스 장식을 색칠하는 활동입니다. 이제 곧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니까 귀여운 튜브벨을 함께 만들고 색칠하였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고 활동한 결과물을 집에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손이며 웃이며 다 써인 펜을 문히면서 색칠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한 활동 중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아 뿌듯했던 것 같아요.



**Q5. 해당 프로젝트는 1:1 멘토/멘티프로그램으로
멘티들과 유대감 형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초반에 멘티들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이 있나요?**

A5. 저희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멘토/멘티 간의 라포형성, 즉 유대관계 형성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첫인상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맞이할 때 최대한 반갑게 웃으며 맞이하고, 첫 활동 때는 동물로 호칭을 정해 토끼뽀 등 아이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멘토들이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너를 좋아한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애정이 담긴 따뜻한 표현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Q6.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삼육대학교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6.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전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성장해서 행복한 성인이 되려면 아이들에게 사회적 지지와 도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삼육대학교 학우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고, 비슷한 얼굴을 가져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른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토리 운영단 | 김혜민

삼육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글로벌역량'

학점이 부여되지 않지만, 재학생을 전인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정규 교과교육과정(전공, 교양) 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삼육대학교의 비교과프로그램.

다양한 경험을 통해 6대 핵심역량(시민의식, 소통,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글로벌, 나눔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PASSION역량인 [글로벌역량]에 대해 알아봅시다.

+ 2021학년도 글로벌역량 프로그램



+ 핵심역량특강_스미스 인문주간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지식의 대통합을 기획 의도로 하여, 통섭을 지향하는 책 저자 초청 특별 교양강 강연 프로그램

강사 | 황영미, 김일환, 이종관 교수님

일시 | 학기 중

장소 | 온라인 E-CLASS

혜택 | SU-Point 제공(수강 100% 및 설문조사 완료자)



+ 스미스인문주간_독서감상문 공모전

선정된 지정 도서 중 책을 읽고 도서의 주제, 내용 요약, 개인적 경험, 독서 후 변화 등을 독서감상문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는 프로그램

대상 | 2021학년도 재학생

제출기한 | 학기 중

참여방법 | 비교과통합시스템에서 신청

혜택 | 수상 시 상장 및 장학금 지급



글로벌역량더보기 대학생재능봉사캠프



Q. 대학생재능봉사캠프란?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방학기간 동안 농어촌 소외 지역, 사회배려계층 가정 등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멘티와 함께 학습지도, 진로상담, 예체능 창의활동 등을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캠프 형식의 나눔 봉사활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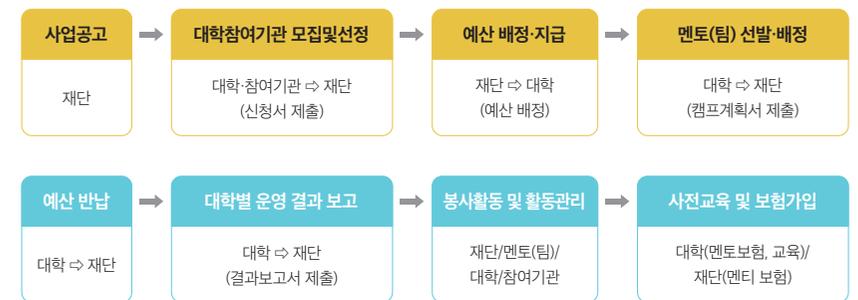
Q. 활동 유형 및 시간

팀별로 진행되는 재능봉사 캠프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참여기관 담당자 및 소속 대학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캠프를 기획하고, 활동기간 중 참여기관 또는 멘토(팀) 소속 대학 등 캠프 활동 장소에서 4일(최소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일 최대 8시간 활동 인정 가능하며 이동시간은 활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활동 내용 및 지원사항

예체능 분야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 멘티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창의적 멘토링 또는 학습법 지도 및 진로 상담 등 멘티의 학업 집중 및 동기부여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시 활동비로 교통비, 교재비, 숙박비, 식비 등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멘토 1인당 35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우수활동자에게는 우수 사례 공모 등을 통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한국장학재단 사회 리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완료자에게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명의로 봉사활동 확인서] 도 발급됩니다.

Q. 캠프 운영절차



글로벌 역량 더보기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 2019년 동계 오프라인 캠프 참여자 인터뷰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봉사단 소속 '온소리'입니다. 컴퓨터공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저희는 18년도 동계, 19년도 하계, 동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활동을 진행하였고, 3회 모두 청학리에 위치한 [실로암지역아동센터]에서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Q. 캠프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창의적 프로그램' 활동으로 그 중에 저희는 '수박 부채 만들기'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활동 위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Q. 캠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먼저 기관에 연락하여 기관 선생님들께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 '어떤 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등을 여쭙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활동인 코딩게임, 아이스브레이킹, 키링 만들기, 화분케이크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그 후 시간에는 매일 2시간씩 고정 학습지도를 요청해서 진행하였습니다.



Q.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학생들 중 굉장히 승부욕이 넘치는 멘티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박 뒤집기라는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그 게임에서 져서 우는 멘티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Q.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재능 봉사캠프라는 것이 연탄봉사나 헌혈 같은 다른 봉사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멘토들이 기획하고 그 기획에 따라 활동하는 봉사활동이기에 뜻 깊었고, 기획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멘토 친구들과 더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초반에 멘티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부모님에게 새해 편지를 쓰는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멘티 친구에게 왜 아버지에게만 편지를 쓰느냐고 질문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멘티 친구가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캠프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기관 담당자께 멘티들의 상황을 여쭙보고 파악한 후에 진행 멘토들에게도 미리 알려주고 논의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글로벌 역량 더보기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 2021년 하계 온라인 캠프 참여자 인터뷰



Q. 온라인으로 캠프를 진행하면서 느낀 온라인의 장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대면으로 캠프를 진행할 때는 아이들에게 몸동작과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였는데, 온라인은 만들기 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진행할 때 따로 PPT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등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니 풍성하게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멘티들의 집중을 위해 한방에 모이는 것보다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현장에 계신 담당 선생님들께서 각 팀별로 지도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봉사가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학술 동아리 [PAPER]의 대외협력부 부장입니다. PAPER는 발표력 함양을 위한 주제활동 및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로 PD부, 기획부, 대외협력부 이렇게 세 가지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방학 때마다 한 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봉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하계 봉사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Q. 온라인 캠프를 진행하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캠프이기에 외부 사이트에서 노트북 8-9대 정도를 빌려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센터에는 저희가 빌린 노트북을 제공하였고, 멘토 친구들은 대부분 각자의 집에서 참여하며, 소수 인원 4-5명 정도만 학교에 모여서 줌(ZOOM)으로 센터 내 아이들을 10명씩 한 팀으로 총 3팀으로 나누어 팀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Q.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활동이 '캔들 만들기'였습니다. 특별히 뜨거운 왁스를 다루야 해서 어린 친구들에게는 위험할까봐 걱정이 많았던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것 같은 요인들을 따로 적어서 센터로 보내드리고, 센터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캔들을 화면에 비추어 보여주면서 자랑해주는 멘티들을 보며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선택한 것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캔들 만들기가 너무 즐거웠다고 써주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Q.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제가 무언가를 책임지고 맡아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갈 수 있어서 좋았고, 온라인 봉사라는 코로나 시대 때만 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사고 역량 비교과 프로그램 SU-StartUP 창업오디션



2019-1 창업오디션 행사 장면



2021-2 창업오디션 홍보자료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가치 혹은 그 결과물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가치로 하여금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바라보면, 창의적 사고는 취준생, 예비창업자를 아울러 모든 학생에게 필수가 되는 역량이 아닐까 싶다.

이 역량을 발휘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으로 'SU-StartUP 창업오디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로 작성하여 경쟁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아이템, 계획서 작성, 발표 역량에 대한 멘토링도 받을 수 있으니 아이디어를 내는 것, 특히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대학생들 중 꼭 도전해보기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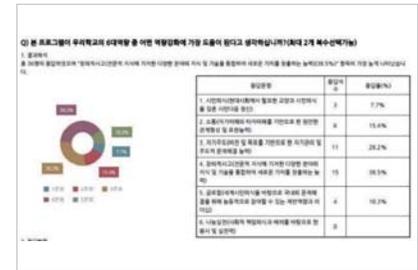
about 프로그램 개요 및 활동내용



- 프로그램 명 | SU-Start-UP 창업오디션
- 운영시기 | 2017-2 ~ 현재, 매 학기 운영 중
- 참가대상 |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혹은 팀
- 활동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원페이퍼, 최종), 발표평가사업계획서 작성 특강 및 멘토링, 발표역량 강화 멘토링, 사후 멘토링(정부과제 지원)
- * 정부과제 지원 |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아이템을 더 개발하여 정부과제에 지원하거나 외부경진대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팀에게 추가적으로 멘토링을 지원함
- 활동기간 | 학기 중 2주~4주 소요, 사후 멘토링 희망 시 기간 연장
- 특전 | 총장상, 장학금, 마일리지 등
- 문의 | 스타트업지원센터 ☎ 02-3399-3911, 3914, 3235



참가자는 자신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발표하고 평가받는다.



참가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우리대학의 6대 역량 중 '창의적사고' 역량이 강화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창업오디션을 통해 제시된 사업 아이템, 플랫폼 외에도 제품 형태의 아이템 또한 가능하다.



Q&A

참가자에게 묻다 활동학생 인터뷰

윤지은(일본어학과)



창업오디션을 시작으로 실제 창업까지 이뤄낸 학우가 있다. 일본어학과 윤지은 학우는 대학생할 중 창업 비교과프로그램에 다수 참여하여 창업과 관련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그의 창업오디션 활동은 어땠을까. 활동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Q1. 참가계기

지은 창업오디션에서 수상을 하거나 창업 관련 실적을 쌓으면, 방학 중 해외창업연수(창업여행프렌즈) 기회가 주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 지원 당시 창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은 우려도 있었지만, 참가 학생들을 위한 창업 특강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기업가 역량을 강화시키며 최종발표까지 준비할 수 있었다.



2018-2 창업여행프렌즈활동동 당시

Q2. 활동과정

지은 주로 아이디어 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자료 제작 역할을 맡았다. 전공이 일본어라 보니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서비스개발능력, 디자인능력 중 무언 하나 잘하는 것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배워가며 아이템에 대한 기획, 개발, 디자인 전부를 혼자 해보려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팀원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결할 수 있는 부분에만 더 집중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Q3. 이뤄낸 성과

지은 창업오디션 덕분에 창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창업 관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창업오디션에서의 활동은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수상, 기획아이템 특허 등의 성과로 이어졌으며, 그 결실로서 2019년에 교내 창업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선배들과 창업을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만나 지금까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원들이 내게 있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성신여대 제8회 창업경진대회 수상

Q4. 활동 소감

지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인정하고 배워나가려는 마음가짐을 얻었다. 과거에는 부족한 부분과 관련된 일을 최대한 피해서 타인에게 들리지 않으려 했었고, 그래서 성장하는 속도가 느렸다. 하지만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그 부분들을 노력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잘하지 못하면 노력해서 잘하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빠른 인정과 수용,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 잘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 즉 '집중해야 해야 할 것' 또한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집중'을 통한 나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중이다.



광운대 2018 도시락 아이디어경진대회 수상

궁금해?

[삼육대학교 학과가 궁금해?]

환경디자인원예학과를 소개합니다!



환경디자인원예학과란?

원예학과와 예코학문을 실천하는 환경그린디자인학과를 융합한 학과로, 환경디자인과 원예, 두 분야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쾌적한 환경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원예 분야에서는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도시 농업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디자인 분야에서는 도시환경 디자인과 실내원예 디자인, 녹지 환경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디자인 실무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공관련 지식

디자인과 식물에 대한 기초 지식, 원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활용 기술, 환경적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식물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시설재배와 분석시스템 활용 기술, 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태도, 적극적인 수용 및 의사소통 의지, 환경에 대한 배려와 원예작물을 관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련 직업 및 분야



❁ 환경디자인 심화 전공자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회사, 디스플레이 장식 디자이너, 공간디자이너, 컬러리스트, 디자인 관련 국가 공무원 등

❁ 원예 심화 전공자

국내/해외 중요회사, 첨단농업시설(식물공장), 농산물 유통 회사, 식플회사, 농자재회사, 잔디생산회사, 잔디종자 및 비료 회사, 원예관련 국가공무원 등

❁ 조경 심화 전공자

조경설계 사무실, 조경전문 시공회사, 조경시설물 설치회사, 조경수 생산관리회사, 정원수 및 텃밭 식재회사, 대기업 건설회사의 조경설계 및 시공분야, 조경관련 국가 공무원 등

❁ 식물·정원 융복합전공자

원예 수목원, 나무병원, 잔디장비 수입 유통회사, 골프장 시공 및 관리 회사, 리조트잔디 및 정원관리, 플로리스트, 화훼 장식디자이너 등

❁ 국가직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과학원, 각 도 농업기술원 연구 및 지도직,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국가 검역소 등

❁ 공기업

LH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농협, aT센터,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 교직을 이수한 경우

농업생명과학고 교사, 교육관련 콘텐츠 회사 등

❁ 기타

대학원 진학 등





환경디자인원예학과생 interview

환경디자인과 원예가 합쳐진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두 분야에 각각 관심이 있는 1학년 학생들 2명을 인터뷰하였습니다.

Q1. 환경디자인과 원예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 정현** 환경디자인이란 생활 주변의 조경, 도시의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과 인공적인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진** 원예는 농업의 한 분야로 집약적이고 제한된 영역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가공, 저장, 품질 저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Q2. 이 학과에 진학하며 기대한 것이 있나요?

- 우진** 생명과학을 배우면서 생명, 유전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예학에서 진로를 생각하며 종자학 조직배양과 같은 기술을 통해 작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얻길 기대하며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정현** 일반 디자인과가 아닌 두 분야를 같이 하는 점에 끌렸습니다. 조경, 전시를 배울 수 있던 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들어왔습니다.

Q3. 환경디자인원예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정현** 여러 가지 분야를 배울 수 있다는 특색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희과는 전공 필수 과목 없이 전공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유롭게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우진** 두 과가 합쳐져서 원하는 것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선택 범위가 넓은 점도 있습니다. 원예에서도 농업 공무원, 회사 취직 분야 등이 있고 디자인 쪽에서는 조경, 실내 식물 재배 등 다양한 선택 분야가 많습니다. 또 저희 과에는 온실이 있는데 여기서 실 수도 있고 여러 식물들을 볼 수 있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식물들 사이에 소파도 있고 실내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4. 가장 흥미로운 수업은 무엇이었나요?

- 정현** 저는 지금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포토샵 수업에서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일러스트 등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에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 우진** 전 1학년 1학기에 원예학개론을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전공에 대한 기본적 배경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Q5. 졸업 후의 진로 방향과 진로를 위한 계획이 있나요?

- 정현** 일단 졸업 전에 포토샵 자격증, 컬러리스트 자격증은 취득할 계획입니다. 컬러리스트는 색채를 조합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두 자격증을 가지고 디자인 회사나 잡지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고자 합니다.
- 우진** 중요 회사나 연구소 같은 유전 관련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석사학위를 필요로 해서 대학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후 자격증은 중자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입니다.

Q6.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환경디자인/원예 분야는?

- 정현** (환경디자인)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우울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환경디자인으로 지친 사회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 우진** (원예)원예 산업이라 하면 많이들 꽃과 농업을 떠올립니다. 사실 품종개발, 유전 조합도 속해 있습니다. 전 이런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기에 좋은 실적으로 이 분야도 원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실적으로 우리나라 원예 사업을 발전시켜나가고 싶습니다.

Q7.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공 능력은?

- 정현** 환경적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식물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환경디자인과 원예가 따로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도 쓸 수 있고 원예에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를 수 있고 이 능력도 중요합니다.

Q8. 환경디자인원예학과의 장단점은?

- 우진** 전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디자인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원예 수업을 들으면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한 분야가 다양해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Q9. 마지막으로 '환경디자인원예학과 21학번ooo(이름)하면'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 정현** 열심히 학교 수업을 듣고 조별과제가 있으면 잘 이끌어 가는 학생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조별과제에서는 리더의 자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많이들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우진** 솔직히 말하면 과탐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드니 원예 쪽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와서 모르는 걸 물어볼 수 있는 학생으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 친근한 친구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해?

[삼육대학교 학과가 궁금해?]

사회복지학과를 소개합니다!



사회복지학과란?

사회복지학과는 지구촌의 빈곤과 질병,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스마트 복지를 지향합니다. 공영 경제와 복지 테크놀로지의 개발을 바탕으로 지성과 창의를 겸비한 전문 사회복지 인력을 양성합니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는 보건·복지 연계 및 통합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산학 협력을 구축하여, 사회복지와 보건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모델을 만들어 국가·사회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공공기관, NGO 등 분야가 있습니다.

필요한 전공 능력

전공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을 위해 다양성과 차이 존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이고 연구적인 사고 능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실천 현장 적용 능력, 자원관리 및 동원 능력, 개입 및 평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 과목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학개론 (1학년 1학기 전필)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성격과 본질, 사회복지의 분야, 방법론 등을 개관하고, 현대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추세와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기초개념과 가치를 익힌다.

사회복지 실천론 (2학년 1학기 전필)

사회복지 실천 대상 가운데 개인, 집단,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들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학년 2학기 전필)

개인 및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개입하기 위한 기초 이론과 모델 및 기술에 대해 각각 살펴본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 연습을 통해 다양한 실천 모델과 기술, 기법을 적용하여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3학년 1학기 전필)

사회복지법의 기본사각으로서 사회복지법의 개념, 생존권, 사회복지의 가치와 목적 및 일반 원리를 고찰하고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정과 범위 및 구조를 파악한다.

지역사회복지론 (3학년 1학기 전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간접적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지역사회원조기술의 이론과 방법을 습득한다.



사회복지정책론 (3학년 2학기 전필)

사회복지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사회이론들을 알아본다.

사회복지조사론 (3학년 2학기 전필)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기초 이론 및 서베이, 욕구조사, 실험연구, 단일사례연구설계, 프로그램 평가 등 중요한 조사방법의 설계방법과 자료수집 기법들을 배운다.





사회복지학과 3학년 재학생 interview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선배님에게

어떤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는지와 대학생활 꿀팁들을 여쭙보았습니다.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진경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한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으로 어르신 요양센터에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활동, 식사보조 등의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노년기가 되어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2. 그러면 선배님의 진로 방향도 노인복지이신가요?

진경 네. 저는 아이가 첫 걸음을 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마지막 걸음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노인이 되고 부모님도 노인이 되실 테니까 인정받고 평온하게 생존할 수 있는 노인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Q3. 가장 기억에 남는 전공필수 과목이 있나요?

진경 2학년 1학기 전필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인간의 전 생애의 특징을 배우는데, 이 과목의 내용 중에서 아기가 사물을 인식하고 잡는 과정을 배웠어요. 저도 그 인생을 거쳐 온 거잖아요. 제가 거쳐 온 학습 패턴을 배우는 게 인상 깊었어요. 또한 제 관심 분야인 노년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4. 전공필수 과목을 수강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나요?

진경 이전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윤00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업 듣는 태도, 열심히 하는 태도를 높게 보십니다. 과제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설명설명하면 안 됩니다. 김00 교수님의 사회복지실천론 과목에선 주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알려주면 되니 말을 뱉는 것을 먼저 하라는 주의세요. 그러니 이 수업을 들을 땐 두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00 교수님께서는 토론을 좋아하십니다. 창의성 있게 사회복지학과생으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토론을 좋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정00 교수님은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Q5. 그럼 교수님별로 학습 팁이 따로 있을까요?

진경 윤00 교수님 사회복지조사론을 듣고 있는데 문제집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1급 문제집인데 살짝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공부하면 좋습니다. 조00 교수님과 정00 교수님은 시험의 갈피를 잘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두 분의 과목은 책을 열심히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00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험 유형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 주장이 다르다 보니 이것이 5지 선다형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학자의 의견을 다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교수님의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강조하신 부분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과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정00 교수님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이 있어요. 이때 먼저 500개 가량의 문제를 주시고 여기서 중간, 기말이 다 나오니 답을 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냥 외우기보다는 이게 왜 틀린 건지 꼼꼼하게 보고 여러 번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Q6. 선배님만의 시험공부 방법이 따로 있나요?

진경 공부를 하다 보면 대단원, 소단원 등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때 마인드맵을 그려서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시험장에서는 그 마인드맵의 잔상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라고 하면 어떤 주장, 이론 등을 마인드맵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기보다 '한 번이라도 더 보자'했을 때가 더 만족스러운 성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Q7. 취업과 관련하여 전공필수과목이 도움이 되었나요?

진경 '사회복지실천론'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살아온 배경, 가치관을 잘 알아야 클라이언트한테도 영향이 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듣고 나서 실습을 하면서도 제가 어떤 장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은 실습에 많이 직결되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어떤 기술이 개입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비언어적 반응을 해야 하는지 이 과목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공 선택 과목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것 또한 실습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Q8.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학과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진경 교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지는 경제발전이 주를 이루는 사회 속에서도 사람만을 생각하는 학과입니다. 급여, 전문성이 낮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학과와의 연계 속에서 우리 학과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고독사를 예방하는 로봇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공부해서 빛지고 빛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이 된 당신을 축하합니다. 성년이 되고 겪을 앞으로의 모든 것에 열정을 가지고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언제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쁘고 좋은 향을 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년의 날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당신을 응원합니다.



- 25대 사회복지학과 우리 학생회 드림 -



학우들의 뒤에서 든든하게 빛나는 SYUPHARM STAR

삼육대학교의 많은 학과 학생회들 중, 눈에 띄게 빛이 나는 한 학과가 있다. 바로 약학과 학생회다. 바로 약학과의 슈팜스타! 활동이력을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학우들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슈팜스타가 지난 1년간 학우들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활동들을 잘 해낼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알아보자!

Sj • 약학과란?

약학과는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기초과학을 근간으로 하여 의약품의 취급에 관련된 제반분야를 다루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졸업 후 약국, 병원, 제약회사 연구소, 보건 관련 공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며 삼육대학교의 약학과는 학부과정과 함께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을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약학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Sj • 약학과만의 독특한 학생회 네이밍

현재 41대 학생회는 SYUPHARM STAR인데, 그 중 SYUPHARM은 SahnYook University와 Dept. of Pharmaceutical Science의 합성어로, 매년 학생회명은 해당 단어를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Sj • SYUPHARM STAR 부서 알아보기



Sj • 지난 1년간 진행된 대표적인 학회 활동 TIME LINE

- 1월**
 - 가로세로퀴즈(학생회 출범 이벤트)
 - 국시 응원 물품 배부
- 2월**
 - 온라인 신입생 OT
- 3월**
 - 랜선캠퍼스 투어
 - 과잠제작 및 배부사업
 - 그룹학습실 개설
- 5월**
 - 동년배 러어링 대회
 - 랜선 호프
 - 스승의날 감사인사
 - 슈포인트 2배 적립 이벤트
 - 기말고사 간식사업
- 8월**
 - 방학생활 그림일기대회
- 9월**
 - 슬기로운 약대생활(초청강연)
 - 걸어서 삼약속으로
 - 중간고사 간식사업
- 10월**
 - 국시실 책갈상 교체사업
- 11월**
 - 약인제(약학과 축제)
 - 총동문화 토크콘서트
- 12월**
 - 졸업예배
 - 화이트코트 세레머니
- 그 외**
 - 슈패밀리 제도 운영
 - 복합기 계약 및 설치
 - 사물함 추가 설치
 - 각종 현찬 물품 섭외 및 배부
 - 휴게실 및 그룹학습실 정기환경미화
 - 총동문화 소개영상 제작
 - 총동문화 소식지 배부사업



약학과 학회장 interview.



박희정(17학번)

약학과



Q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한 해 동안 약학과 의 제 41대 학생 회장을 맡았던 약학과 17학번 박희정입니다.

Q2. SYUPHARM STAR(슈퍼스타), 어떤 의미인가요?

'약학과 재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약학과의 주인공이 자 슈퍼스타라는 의미로써 SYUPHARM STAR 라고 학생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Q3. 협찬과 같이 외부관계자들과 협업해 가능한 행사들을 타 학과에 비해 많이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약업계에 진출하게 될 약학과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한 업체와 물품을 경험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협찬품 섭외에 더욱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협찬품 섭외 시 학교 이름과 약학과라는 이미지가 업체 측에도 좋게 남기를 바라며 더욱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찬 요청 및 피드백 드렸습니다. 또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홍보활동을 약속드리고 협조 공문도 정성스럽게 꾸렸습니다. 특히 행사 목적과 내용에 맞는 품목들로 협찬 요청 대상을 선정하였을 때 더욱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약인제 협찬품]

Q4. 총동문회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진행된 활동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약학도가 끈끈한 학연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시나요?

올해 새로 부임하신 총동문회장님께서 적극적인 재학생 및 모교 지원 사업을 추진하신 덕분에 더욱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끈끈한 학연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건, 삼육대학교 약학과에 대한 동문선배님들의 마르지 않는 애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학과의 존재 자체가 특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책걸상 교체 이후 국시실의 모습]

Q6. 그 중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임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다양한 행사를 열고 싶었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키워왔으나 아쉽게도 비대면 학기가 지속되는 탓에 포기한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진행할 수 있었던 모든 행사들이 저에게는 하나 같이 다 소중한 기억으로 남긴 하지만, 유독 "걸어서 삼악속으로"라는 행사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임기 동안 실현해보고 싶었던 여러 행사의 컨셉을 하나의 행사로 모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만족스러웠고, 시기적으로도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교정을 재학생들이 한껏 누릴 수 있었던 행사가 된 것 같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7. 지난 1년간 활동하신 소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비대면 학기가 2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학과 특유의 친밀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 않는 일도 많았고, 더욱 챙기지 못해 아쉬운 부분들도 많지만, 끝까지 함께해준 학생회 학우들이 있어 고맙고 곁에서 응원해준 약학과 학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202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Q8. 내년 학회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주세요.

내년에도 어김없이 약학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세요! 약학과 42대 학생회 '슈타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약학과 학생회 슈퍼스타가 성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회 학우분들의 노력이 매우 컸지만, 이외에도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총동문회 선배님들의 든든한 지원, 외부 관계자와의 컨택 등 많은 분들과의 협력으로 일궈낸 아름다운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약학과 학생회 '슈타임'도 기대가 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인터뷰가 학생회를 이끌어 갈 여러 학우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란다.

★ 선배님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

그룹학습실 개설
(15학번 선배님 의자 기증)

국시실 책걸상 교체사업
(총동문회지원)

총동문회 토크콘서트

신설학과 항공관광외국어학부, 그것이 알고싶다!

중국어학과 & 일본어학과 통합으로 탄생한 신설학과 항공관광외국어학부!
아직 우리에게 낯설지만 한데... 어떤 학과인지 한 번 파헤쳐보도록 하자!



Sü 삼육대 항공관광외국어학부만의 특징

- ✓ 서울권 내 4년제 대학 중 최초 개설된 학부
- ✓ 최신 항공서비스 실습공간 구성
- ✓ 차별화된 분야별 최상의 전임 교수진
- ✓ 관광경영학사, 문학사 복수학위 취득
- ✓ 비교 불가능한 학부 졸업생의 어학능력
- ✓ 다양한 진로 진출 및 자격증 취득 가능

Sü 무엇을 배우나?

- ✓ 중국어와 일본어 및 동아시아 문화지식을 바탕으로 국제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차별화된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 ✓ 항공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연계된 체계적 실습교육 제공
- ✓ 항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경영학 및 항공서비스 실무 진행

Sü 항공관광외국어학부란?

급변하는 지구촌의 관광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시대에 맞는 외국어 기본 능력과 국제적인 문화 소양을 겸비하고 관광 전문인이 지녀야 할 실습 능력까지 갖춘 글로벌 서비스 리더를 양성하는 학부

Sü 항공관광외국어학부의 목표

-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항공관광 서비스 전문인재 양성
- ✓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며 국제 문화교류 및 비즈니스를 실천하는 중일 언어문화 전문인재 양성

Sü 학과 인재상

동아시아 문화 지식을 바탕으로 항공관광 서비스의 전문성을 지닌 융합형 인재

항공·관광·중일 언어 문화를 융합한 국제적·학제적 관점을 가진 창의적 서비스 인재

Sü 학과 전망 / 취업 분야

- ✓ 4차산업혁명도래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항공 및 관광 산업 규모 확대
-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항공관광사업은 변화할 뿐,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 관광 및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방송 및 언론, 경영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전문 서비스인으로 사회에 진출 가능

관광 및 서비스업

국내외 항공사 객실승무원, 공항 지상직, 호텔리어, 관광통역안내사, 열차객실승무원, 여행 기획사, 서비스 강사 등



방송 및 언론

아나운서, 신문기자, 방송리포터, 프로듀서 등

출판 및 통번역

번역가, 통역사, 교재 및 교구 개발자 등



무역업

해외영업원, 대외제휴협력사무원, 물류관리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외교관, 국제공무원, 출입국심사관 등

경영지원 등

경영기획, 신 사업기획 해외마케팅, 고객관리 등

+
그 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벤처창업

학과 학생 인터뷰
김준수 & 변정연(21학번)

Q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변정연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홍보부장]

안녕하세요 저는 신설학과 항공관광외국어학부를 잘 이끌어 나가고 싶은 21학번 홍보부장 변정연입니다.



[김준수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중국어동아리부장]

홍보팀과 중국어 동아리장 활동으로 바쁜 삶을 보내고 있는 21학번 신입생 김준수라고 합니다!



Q2. 수험생 시절, 항공관광외국어학부에 지원하셨던 계기가 궁금합니다.

[변정연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홍보부장]

고1때 영국으로 국제교류를 다녀왔던 경험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워 그 적성에 맞는 항공 관련 진로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해당 학부의 'IN 서울 최초 4년제 학과'라는 메리트가 가장 크게 느껴져 해당 학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김준수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중국어동아리부장]

삼육대학교 항공관광외국어학부의 '경쟁력'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물에 항공 관련 학과가 생긴 것이 최초이고, 타 항공 관련 학과들과 독보적인 차별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졸업 이후에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Q3. 학과 분위기는 어떤가요?

[변정연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홍보부장]

우선 저희 학과 분위기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특성상 많은 자격증을 공부해야 하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은 서로 물어보고 알려주며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참여도도 매우 높습니다. 학생들 모두 수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입니다. 교수님들도 저희의 적극성을 아시는지 더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느껴져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수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중국어동아리부장]

신설학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열정이 합쳐진 덕분에 저희 모두가 원하는 학과의 모습과 분위기를 잘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교수님들이 직접 저희를 먼저 찾아 주시고, 항공분야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해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동기들이 1학년 친구들의 열정이 학업, 동아리활동, 학과생활 등 다방면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Q4. 학과 홍보부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 해 동안 홍보부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변정연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홍보부장]

신설학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른 학교의 항공과보다는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학과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많은 입시설명회에 참여하여 학과를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준수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중국어동아리부장]

또 저희 학과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멘토링을 진행하였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멘토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줌을 적극 활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진행했습니다. 저희 모두 처음이었던 터라 조금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학생들 모두 자발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너무 뜻깊었던 1년간의 홍보부 활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Q5. 학과 내에 어떤 동아리가 있나요?

【 변정연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홍보부장 】

'어학동아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학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중국어 동아리와 일본어 동아리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둘 다 전체적인 활동 내용은 비슷합니다. 정기적인 스터디 진행과 수시로 대면이나 단체 카톡방을 활용하여 질의응답도 주고받으며 활발하게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중심으로 학습하고 서로의 발음을 교정해주며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김준수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중국어동아리부장 】

'추후에 승무원 동아리도 개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어동아리 부장으로서 초반에 학우들과 어떻게 같이 중국어도 배우고 즐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말하기와 듣기를 큰 중심으로 하여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고,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잠정 휴식을 취한 상태이지만, 중국 드라마 찍기를 기획하여 학업과 즐거움 모두 챙길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6 삼육대 항공관광외국어학부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변정연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홍보부장 】

서비스와 어학 경역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다 배우다 보니 미래에 어떤 곳으로 취업을 하든지 비즈니스 안에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 특성상 취업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사회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 김준수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중국어동아리부장 】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기업들의 기술력은 충분하고, 이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기업의 순위가 좌지우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획하는 글로벌 서비스 인재를 양성하는 저희 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거라 믿기에 전망이 유망한 학과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Q7. 지난 1년간 학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 변정연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홍보부장 】

수업 관련해서는 외부실습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티웨이크루 클래스에 참여하여, 항공업계 실무자인 티웨이 승무원분들께 비상탈출 안전 교육이나 기내 면세품, 기내식 제공 서비스, 기내에서 일어날 많은 안전 대비 상황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수업 이외에도 홍보부에서 입학설명회를 많이 갔었는데 다양한 고등학생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그 학생들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었던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어 기억에 남습니다.



【 김준수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중국어동아리부장 】

전공심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회 진행된 전문가 초청 강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연들을 통해 코로나 상황으로 변화된 항공산업 전반과 객실승무원으로서 갖춰야하는 역량을 실무자 시각에서 들을 수 있었고, 외항사 객실승무원 지원을 위한 준비과정과 각 항공사별 특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Q8. 관광경영학사/동양어문전공 중 어떤 것을 택할 예정이신가요?

[변정연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홍보부장]

저희 학부는 세부전공을 택하더라도 공부는 관광경영학사, 동양어문전공 모두 해야합니다. 하지만 굳이 세부전공을 고르자면 항공서비스에 대해 더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광경영전공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목표직무를 승무원이라는 직업으로 뚜렷하게 정했기 때문에 관광경영전공을 택하여 항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김준수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중국어동아리부장]

저는 고객의 심리와 니즈를 잘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인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에 맞춰서 세부전공을 관광경영학사를 택하여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서비스 전문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Q9.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변정연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홍보부장]

아무래도 신설 학부라 조금의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일 년 다녀본 결과 교수님들도 열정적으로 저희를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정말 안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 동기들도 착하고 학업에도 적극적이고 최고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도 후배분들을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는 것을 모두 알려주고 다 챙겨드리고 싶네요. 그러니 두려움은 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수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중국어동아리부장]

저도 미래 진로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았지만, 학과 진학 후 보이는 많은 길들을 통해 현재는 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공서비스 부분에 한정된 수업이 아닌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학과 교육과정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저처럼 진로에 많은 걱정을 떠안고 입학하는 후배분들에게 고민 없이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학과를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변정연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홍보부장]

항공관광외국어학부는 '새'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매사에 열정적이고, 이미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도 있고... 이런 열정적인 모습들이 저 하늘 위로 높게 올라가려고 날갯짓을 하며 훨훨 나는 새의 모습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준수 _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1학번 _ 중국어동아리부장]

삼육대학교 항공관광외국어학부는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타 대학들의 항공서비스학과와 달리 저희 학과는 외국어 능력과 경영, 서비스, 관광분야, 심지어 컴퓨터 활용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기에 금상첨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항공관광외국어학부에 대해 세세히 알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학부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학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잘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열정으로 나날이 성장하여 세계 곳곳의 여러 분야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항공관광외국어학부 학생들이 되기를 응원한다 :)

전송

쉬어가는 코너...

너의 학과가 궁금해..!

Sj • 간호학과

간호학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기초로 한 응용과학으로서,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이론적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고유한 지식체를 가지고 인간의 건강증진과 안녕 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 학문입니다.

삼육대학교 간호학과는 국내 최초로 남녀공학을 실시하였으며, 국제학생교류교육을 통해 세계각지에 설립된 대학과 학점을 상호 인정하는 단기 해외 유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습장에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재학생에게 학구열을 고취하고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Sj • 보건관리학과

보건관리학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 그리고 지구공동체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소통이론, 건강상담이론, 보건교육이론 등의 학습을 통해 보건프로그램을 개발, 기획, 수행 및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는 보건과학과 관련된 최신 전문지식과 컴퓨터기술을 습득케 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계획 및 기획, 수행, 평가하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보건소, 보건단체, 의료기관, 국제기구 및 산업체에서 보건교육사(국가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 역할 수행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의 공부법 With 간호학과 15학번 그 녀석

항상 게임하고 넷플릭스만 보던 그 녀석, 시험 공부 했다고 물어보면 '공부 안했어... 이번 시험 망했어' 울상이던 그 녀석, 하지만 항상 수석을 놓치지 않은 그 녀석의 공부법이 궁금하다...!

Q1. 거창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 교직이수, 병원 실습하느라 바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간호학과 4학년입니다. 대 반가워요!

Q2. 다양한 학과 중에 간호학과에 들어온 계기가 있나요?

A2. 사실,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원했어요. 적성을 고려한 지원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적성과도 잘 맞아서 학교를 원활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3. 간호학과에서 가장 인기있는 강의나 교수님이 있나요?

A3. 가장 인기있는 강의이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 과목은 일반생물학과 생리학인 것 같아요. 두 과목 다 부문 중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알려주시는 것을 모두가 느껴서 학생들 대부분이 교수님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Q4. 간호학과를 추천한다면 어떤 성격의 학생이 잘 해낼 수 있을까요?

A4. 지난 대학생활을 돌아켜보면 성적을 많이 신경 쓴 학기에는 오히려 더 멀러서 실습시험에서 성적이 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적 스트레스를 많이 내려놓고 실습시험에 임했을 때는 더 상황 대처도 잘해서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여유롭게 행동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진 분이라면 실습시험에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학과 실습과목은 개인의 손 기술도 좋아야 하고, 순간적인 상황 대처능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론과 학문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적합한 상황에 대한 연습과 센스를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5. 수강신청 꿀팁이 있나요?

A5. 간호학과는 학과 특성상 모든 수업의 순서와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요. 때문에 수강신청을 못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는 다른 학과들 보다는 매우 적어요. 1학년 때 딱 한 번 교양과목을 재량으로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잘 선택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부터는 실습과목 수강신청이 총 정원을 절반으로 나눠 A반, B반으로 수강신청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특정 반이 시간표 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저는 장바구니 신청기간에 전공과목을 안 담고 실습과목만 담아서 수강신청을 했어요. 전공과목은 나중에 신청해도 크게 지장이 없어서 저에겐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긴급!) 여기부터 꿀팁 ZONE 입니다. **(과탐을 노리신다면 서행하세요)**

Q6. 과 수석, 차석 둘 다 경험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숨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비법 좀 알려주세요!

A6. 필기시험에서는 중상위권까지는 머리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상위권은 모두 노력과 친구들이 분포해 있어요. 평소에 열심히 시험에 대비하면 누구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중요한 정보를 모두 필기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공부할 때 필기를 중점적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시험 범위를 적어도 3번은 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한 번만 보고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여러 번 봤어요. 교수님이 언급하는 부분 말고는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선배들에게 교수님의 출제 스타일이나 중요했던 개념, 강조하신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들어서, 시험에 관한 정보 수집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별표!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Q7. 간호학과를 대표하는 동아리가 있나요?

A7. 페이퍼 학술 동아리가 있어요. 간호학과 동아리 중 가장 인기가 많아요. 학생들끼리 학문 공부를 하고, PPT도 만들고, 스스로 발표연습도 하고, 선배들의 피드백도 받으면서 서로의 발표실력도 늘리고, 논문도 작성해 보면서 학문적 탐구를 위해 노력하는 동아리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동아리가 많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학과 동아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Q8. 간호학과만의 대표적인 행사가 있나요?

A8.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학부 학생들이 간호사가 되기 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예요. 선서식 마지막에는 핀 수여식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환자를 돌보는 간호

사가 되기를 염원하며 학생들의 가슴에 핀을 달아주세요. 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간호학과 학술제는 학생들의 간호 연구 자세 함양과 간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예요. 학술제를 통해 전공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학과 단합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어요. 간호학과 학생들이 교수님의 조언과 지도하에 프로젝트성으로 논문을 만들면 학술제 행사에서 그 논문에 대해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평가를 받고 시상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Q9. 22학번 새내기에게 조언 한 마디!

A9. 제가 감히 조언을요?(웃음) 제가 여태 학교생활하면서 느꼈던 점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건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교직이수가 필요했어요. 교직이수를 하려면 1학년 점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성적에 온 힘을 다 하느라 엄청 놀지 못한 것?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엔 성적이 중요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은 더 높아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22학번 새내기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린다면, 조금은 더 대학생활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찾아보면 우리학교에는 재미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직이수를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교직이수 과정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중학교 실습수업도 준비해 보고 정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직이수가 아니더라도 졸업 후 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간호학과 새내기 학우분들은 자신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직업을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간호학과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친구들이 성적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1학년부터 차근차근 성적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적을 올리려 친구를 보면 배로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성적은 미리미리 챙겨 둬서!! 간단히 말한다는 게 길어졌네요.(머쓱)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학교생활이 저와는 다를 수도 있지만 대학생활 동안 많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대학생활



With 보건관리 새내기

대학생만 되면 캠퍼스 잔디밭에서 과탕하고 한 쪽 손엔 두툼한 전공 책 들고 다니는 대학생활을 상상해 왔지만, 정작 코로나라는 불청객 때문에 내가 상상하던 대학 로망은 이루지도 못한 채 한 내기가 되고 있다..(영영)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2021년이 지나기 전에 새내기의 패기를 보여주겠다!



Q1. 거창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뭐라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웃음)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근로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보건관리학과 20학번 새내기입니다.

Q2. 코로나 이전의 생활과 이후의 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A2. 저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재수생이었고 되게 무기력했거든요. 또 제 친구들을 통해 흑역사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흑역사만 만들도록 조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친목도 못하고 1년이 지나 버린 거예요. 그 사이 동기들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무리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물론 지금도 아끼는 동기들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대외활동을 통해 좀 더 많이 사귀어 보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Q3. 조별과제는 해보셨나요? 프리라이더가 있었다면 나만의 대처법이 있을까요?

A3. 저만의 대처법은 아니고요. 프리라이더 방지를 위해 교수님께서 상호평가를 마지막에 반영해주셨어요. 또 요즘은 비대면 수업이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해요. 줌으로 회의를 했다는 것을 남김만 참여 안하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거를 수 있어 프리라이더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제가 다 하는 편이에요. 뭐, 같은 배를 탔고 저는 제 학점을 챙겨야 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Q4. 코로나가 끝나고 기대되는 캠퍼스 생활이 있나요?

A4. 새내기들의 파릇파릇한 모습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여기 길을 잘 모르거든요. 여기 바울관도 연구실 일 도와드리고 있는 교수님이 계시서 아는 거고... 사실 다른 건물 이름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학교 거닐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건물 위치를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어? 저도 잘 모르는데 같이 가볼까요?" 하는데 새내기 오면 학교 구성 구성 알 수 있지 않을까요?

Q5.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A5.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던 저는 해외 어학연수를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꼭 공부 때문이 아니더라도, 환경도 바뀌고 주위 사람도 달라지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휴학하고 좀 쉬고 싶은데, 막상 휴학을 해도 성격상 바쁘게 지낼 것 같아요.

Q6. 22학번 새내기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A6. 조언을.. 제가요..?(웃음) 그냥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진로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 계산을 하기보단 일단, 경험을 무엇이든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뭘 해도 교훈이 있잖아요. 알바도 돈 버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럴 통해 배우는 것이 많잖아요. 저 또한 알바를 통해 많이 배웠고, 남들이 재수를 말했을 때 저는 선택지가 없어서 재수를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배운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장단점을 따지기보단 일단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nterview.

음악학과 재학생



심민석(21학번)
음악학과 · 관현악 전공



Q. 간단한 자기소개

A. 21학번 관현악 타악기 전공 1학년 심민석입니다.

Q. 음악학과 지원 이유는?

A. 악기를 전공하는데 한 가지 악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고,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취미로 하여 음악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음악학과 입학 전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A. 음악 관련 입시 학원을 다니며, 타악기 전용 연습실에서 입시 때 필요한 마림바, 스네어, 팀파니를 연습했습니다.

Q. 타악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를 다루고 있나요?

A. 대표적으로 팀파니, 스네어, 마림바를 연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모든 타악기(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팀파니, 실로폰, 드럼 등)를 다루고 있습니다.

Q. 오케스트라에서 타악기 연주자가 종종 큰북, 작은북, 심벌즈, 실로폰, 트라이앵글 등 연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타악기 전공이면 한 타악기만 연주를 월등하게 잘하는지, 아니면 골고루 연주를 잘 해야 하나요?

A. 타악기 전공자는 잘 치는 타악기가 있지만,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대부분의 타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음악학과 캠퍼스 생활은 어떤가요?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A.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많았지만 실기수업들은 대면이어서 재미있는 캠퍼스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추계나 동문연주회를 준비해서 재미있었지만 다른 연주회들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 아쉬웠습니다.



Q. 음악학과 수업 중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었나요?

A. 아무래도 합주 및 오케스트라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타악기는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를 할 때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타악기로 연주를 하는 것보다 모든 소리가 어우러지고 자신의 역할에 맞는 소리가 날 때 짜릿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위한 준비 과정이 좋았습니다.

Q. 음악학과에서 유명하신 분이 있나요?

A. 학생 중에서는 강요셉 테너분이 유명하십니다. 성악전공으로 우리나라 테너 중에서 최초로 오페라를 뽐으신 분이십니다.

Q. 현재까지 참여했던 공연이나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A. 추계연주회와 동문연주회입니다. 추계연주회는 협연으로 오케스트라 반주를 사용하는 연주회이고 동문 연주회는 우리 음악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참여한 음악학과 개설 40주년 연주회입니다.

Q.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가 있나요?

A. Lin chin cheng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힐링이 되는 느낌의 곡이 많고, 쉽고 짧아 보여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곡을 완성하기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Q. 나에게 음악이란 무엇인가요?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에서 추천해 주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A. Lin chin cheng의 'Wind'를 추천합니다. 음악은 듣는 사람과 연주하는 사람 모두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곡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과 음악을 듣는 사람 모두 즐겁게 연주하고 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음악학과를 다니며 힘들었던 점

A. 실제 기간이랑 연주 시간이 겹칠 때,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하니 힘들었습니다.

Q. 반대로 음악학과를 다니며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무엇인가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즐겁게 연주하는 것 자체가 스펙이 되고 경험이 되어 좋았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진로로 나아가고 싶은가요?

A. 군대 군악대에서 부사관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사관을 하면 군대에서 다른 힘든 병사들의 음악적으로 힘이 되어 보탬을 하고 싶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많이 집중하고 추억을 많이 쌓고 싶습니다.

Q. 삼육대학교 음악학과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A. 더 다양한 타악기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악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을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A. 우선 어떤 무대가 주어진다면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은 무대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경험이 되고, 실전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무대에 임하다 보면 자신의 실력이 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동물생명자원학과 재학생



주정범(19학번)
동물생명자원학과



Q. 간단한 자기소개

A. 동물생명자원학과 19학번 주정범입니다. 22살이며, 세부전공으로는 사료(생명공학 사료 영양)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생명자원학과 과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동물생명자원학과 지원이유

A. 아버지께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으며 향후 대를 잇고 싶어 제대로 한우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동물생명자원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동물생명자원학과란?

A. 동물생명자원학과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동물자원(축산) 분야와 동물생명공학 분야에 대해 배웁니다.

Q. 삼육대학교 동물생명자원학과만의 특징?

A. 학과 특성상 다른 학과에 비해 실험이나 실습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강의가 사료영양분석 실험, 미생물학, 실험동물의학, 동물실험법 등 실험실습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는 때 조를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Q. 동물을 좋아하는 것과 동물생명자원학을 배우는 것과 접점이 있나요? 커리큘럼이 어떤가요?

A. 세부전공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르고 수업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우 농장 경영이라는 꿈을 가지고 동물생명자원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과 수정란이식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1-2학년 때는 번식학발생학을 공부하여 가축의 번식 생리를 이해하고 가축의 수정란 생산 인공수정, 수정란이식을 배우고 실험동물(mouse)을 활용한 E.T (수정란이식)과 형질전환동물(유전자 주입기술) 생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또 3-4학년 때는 가축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영양학, 생리학, 대동물학, 사료



학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장 소득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한우 영양학, 사료학 등을 전공할 계획입니다.

Q. 동물생명자원학과 중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교수님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먼저 조용범 교수님은 취업 전담, 학생 상담, 실습을 많이 해주시는 교수님입니다. 또 견학 추진을 많이 해주셔서 좋습니다. 공현석 교수님은 학과에서 가장 많은 실험 주도 동물실험법 개인당 레트를 가지고 직접 실험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자소서와 면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동물생명자원학과를 다니며 좋았던 점은?

A. 다양한 실습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상담을 잘해 주시고 높은 취업률을 자랑합니다. 또 동물실이 따로 있어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Q. 동물생명자원학과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팁은??

A. 후배들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뭐 해야할지 모를 때 학과에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니 교수님과 상담을 하는걸 추천드리고 세부전공이 나뉘기 때문에 세부전공을 미리 잘 선택하여 진로를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그럼 세부전공을 잘 선택하는 방법이나 팁이 있나요?

A. 세부전공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취업 전담 교수이신 조용범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전공을 선택하고 그에 맞게 관련 연구실에 들어가거나 스터디, 동아리에 들어가는 등 자신만의 스토리를 쌓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Q. 나만의 특별한 전공 관련 스펙이 있다면?

A. 축산 취업 동아리 헤이멜과 축산 관련 논문 스터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영어, 학점 등의 공부는 혼자할 수 있지만 학과 전문성을 키우는 농장 및 공장 견학, 논문, PPT 발표, 축산 신문 토론 등의 활동은 혼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내 동아리와 스터디 활동은 교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향후 자소서 작성 시 견학과 외부 활동은 자신의 전문성과 관심을 어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스터디에서 제공한 축산기사자격증 tip과 문제집이 있기에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서로 교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논문스터디 회장을 임하고 있으며, 취업에 도움되는 견학비용, 문제집, 필기류 구매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현석교수님 관련 약대 연구실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물실험을 주로 하며 면역학 생화학을 주로 배웠으며 만약 생명공학관련(CRO)해서 취업할 생각이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Q. 앞으로 진로 계획은?

A. 대학원 사료 영양학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한우 농장경영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최신정보를 활용하여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료를 통해 가축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환경오염을 덜 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Q. 삼육대학교 동물생명자원학과에게 한마디 (5글자로)

A. 돌격앞으로

우리 학교의 이야기

[학과 특집]

상담심리학과·영어영문학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교직이수 학과 특집. 상담심리학과 교직이수로 재학 중인 학우와, 영어영문학부를 졸업하고 선생님이로 재직 중인 선배님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청소년 상담사를 꿈꾸고,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한 19학번 신유나의 이야기

삼육대학교 교직이수 설치 학과 안내			
계열	학부 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사범계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비 사 범 계	신학과	중등학교정교사 (2급)	종교
	영어영문학과	중등학교정교사 (2급)	영어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 (2급)	-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
	간호사학위 완성과정	보건교사(2급)	-
	환경디자인원에 학과	중등학교정교사 (2급)	식물자원& 조경
	음악학과	중등학교정교사 (2급)	음악

교직이수 과목 안내			
구분	교과목	학점	소요최저 이수 학점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2	12학점 (6과목)
	교육사회학	2	
	교육심리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직 소양	생활지도와 상담	2	6학점 (3과목)
	특수교육학개론 (영재교육영역(단원))	2	
	교직실무	2	
교육 실습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4학점 (2과목)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2	
이수 학점 통계	-	26	22학점

인터뷰 대상 소개



상담심리학과 19학번 신유나
3학년 2학기 재학 중



영어영문학부 13학번 정혜림
호남삼육중학교 재직 중



Q1. 상담심리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A1. 고등학생 때 심리학과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학창시절부터 청소년 상담사가 꿈이어서 심리학, 상담심리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중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심리학도 배우고, 상담학도 배울 수 있던 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을 통해서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Q2. 교직이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A2. 교직이수는 고등학생 때부터 결심하게 됐어요. 물론 제대로 된 시스템은 고등학생이라 잘 몰랐지만, 대학교에 와서 교직이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교직이수를 위해 꾸준히 성적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Q3. 교직이수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A3. 가장 큰 노력은 '성적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전공 중에서의 필수 이수 과목은 미리 1~2학년 때 들어보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어요.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가니, 그 전까지는 등수도 확인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Q4. 가장 힘들었던 때는?

A4. 성적에 포함되는 출결 관리와 과제 점수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힘들었어요. 학기가 지날수록 등수에 신경쓰면서 경쟁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1학년 때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는데, 그 성적을 유지해야겠다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있던 것 같아요. 이 때는 마인드 관리를 하려고 집중했는데, 특히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복잡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예전에 한 기자가 김연아 선수에게 연습할 때 무슨 생각을 하나고 물어봤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 크게 와닿았어요. 그 뒤로 저도 해야 할 일을 마중하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Q5.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A5. 지금은 3학년 2학기로, 실습 준비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4학년 때 교생실습을 나가다 보니 수업시연을 할 수 있는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시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4학년 때는 실습으로 바쁘니, 봉사도 미리 하고, 전공 과목 중에도 필수 이수 과목을 미리 이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6.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과목은?

A6. 발달 심리학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 과목이고 이 때 배운 내용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과목에서 배웠던 다큐멘터리나 다양한 토론활동이 생각을 확장시킨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애착 관계 형성에 관한 EBS 다큐멘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Q7. 상담심리학과 교직이수만의 특징은?

A7. 상담심리학과 교직이수는 모든 전공과목이 선택 과목이고, 그 안에서 필수 이수 과목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가족, 청소년 관련 과목은 필수로 이수를 하는데, 이 과목들은 미래의 교사로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상담 이론과 실제' 과목을 이수하면서 상담을 시연한 적이 있는데, 교육봉사로 학생이랑 1:1 멘토링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데, 이 과목을 통해 배운 상담기법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Q8. 앞으로 계획은?

A8. 임용고시를 준비할 것 같아요. 졸업 후 최소 1년 이내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설령 떨어지더라도 한 번은 더 도전할 거고, 안되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교직과 관련된 직업을 찾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청소년 상담센터나 성폭력 상담소에도 관심이 많아 알아보는 중입니다.

Q9. 상담심리학과만의 장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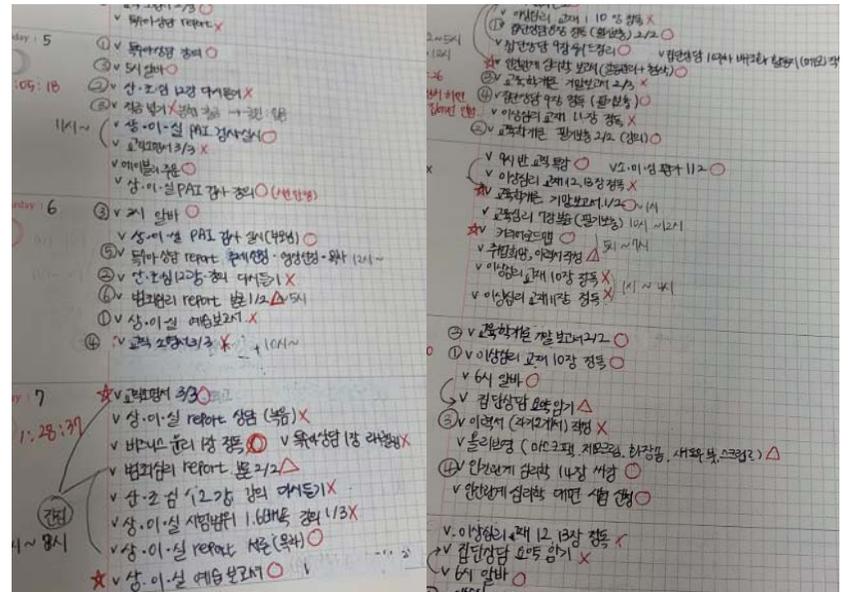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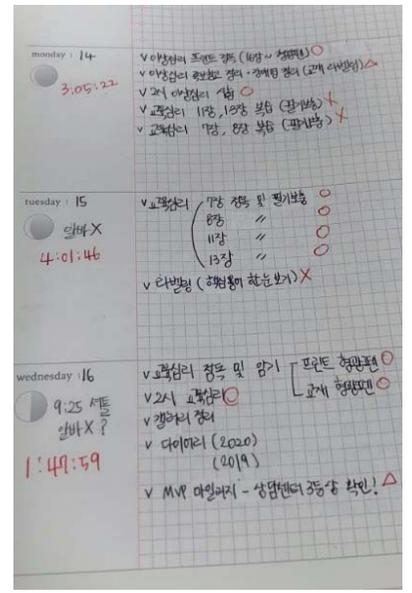
A9. 상담심리학과만의 장점은 과목 자체가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도 다방면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 대인관계에서도 상담기법들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 내면에 대한 고민이 들 때,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힘이 생기고 이에 대해 조절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보다 경청과 공감의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Q10. 학창시절에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선생님이 있나요?

A10. 고2 때 담임선생님이 가장 위로가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 "너는 진짜 열심히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해줬는데, 이 때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고, 선생님이 주신 믿음이 실천으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때 성적도 좋았구요. 교직이수를 하면서도 그 선생님의 태도를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Q11. 자신에게 의지를 북돋아 준 말이 있나요?

A11.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자기가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문장 덕분에 더욱 열심히 생활할 수 있었고, 현재에도 항상 되새기는 문장입니다.



호남삼육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어영문학부 선배의 이야기 (Feat. 삼육임용)



Q1. 자기소개

A1. 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 영미어문학부 13학번으로 입학해 2017년에 졸업하고, 2019학년도 삼육임용시험에 합격해 현재는 호남삼육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혜림입니다.

Q2. 과거 영어영문학부에 지원한 계기

A2. 어릴 적 영어를 공부보다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접근하게 되어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자료를 찾을 때도 우리말로 검색하는 것보다 영어로 검색했을 때 훨씬 더 방대한 자료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영어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많이 느껴 영미어문학부에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Q3. 졸업 후 교단에 서기까지의 준비 과정

A3. 일반 교사 임용시험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볼 생각조차 못했고, 오로지 삼육교사 임용시험만을 생각하며 준비했는데 제가 졸업하는 해에 영어 교사 임용 공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어도 시험을 볼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참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 개원한 영어 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학원 강사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싶어서 마음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6개월 정도 학원에서 근무하며 중등부 팀장으로 승진하고, 학생들과 친숙해지고 가르치는 일이 익숙해질 무렵, 하나님께서 한국삼육중학교 시간 강사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곳이면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생활영어 강사 및 원어인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고, 1년 동안 영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했는데,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 및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저를 이끌어 주시는 길이 가장 유익한 길임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일정들이 조정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 뜻을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80:1이라는 경쟁률 속에서 합격을 하며삼육교사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Q4. 자신만의 교육 철학은?

A4. 저의 교육 철학은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입니다. 초임 시절 '담임은 무서워야 애들이 잘 잡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기적인 학생들을 무섭게 잡아야 사교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된 교육은 학생들을 선생님 앞에서만 잘하는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뿐이지 마음의 감동이나 변화가 없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진심 어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이 열릴 때 시작되고, 그 열린 마음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때,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적으로 알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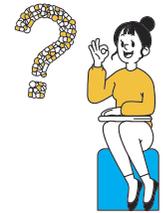
Q5. 과거 교직이수를 준비하던 나에게 혹은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A5. **"교사들은 저들의 학생들에게 책 가운데 있는 지식을 나누어주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한다...교육은 학생들의 정신과 품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대한 사업이다...교사는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학생들이 장차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65)

과거 제가 교직이수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수업,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수업을 연구하고 준비하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2년 차까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담임을 맡게 되면서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아이들의 인성·신앙교육, 즉 학생들의 정신과 품성을 바르게 형성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야지만 진정한 삼육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지 모르고 과거의 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혜림아, 거듭나야지만 삼육교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시험만 잘 봐서 교사를 하려고 공부하며 나중에 고통 속에서 배우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먼저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네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네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실 터이니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만 하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혹시 한국학 전문가 양성 학과 글로벌한국학과라고 들어봤어!?

방탄소년단,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랑받고 있는 한류?!

한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글로벌한국학과]에 관해 알아볼 때!



01 글로벌 한국학과 소개

sj 글로벌한국학과란?

글로벌한국학과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릴 수 있는 국제적인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다양한 이론 교육, 문화 체험, 현장실습, 인턴십 실무 교육을 통해 한국교류·홍보전문가와 '한국문화·한국어 교육자'를 양성합니다. 내국인 학생에게는 한국학 관련 문화기관 경영 기획, 문화 정보 기획, 문화정책 개발, 문화사업 기획 등 고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외국인 학생에게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sj 글로벌한국학과 신설목적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릴 수 있는 국제적인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본 학과는 글로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와 '한국 교류·홍보 전문가'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이론 교육, 문화체험, 현장 실습, 인턴십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외국인 학생들 모두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함으로써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커리큘럼을 고도화하였고, 더 나아가 한국학 관련 문화기관 경영 기획, 문화 정보 기획, 문화정책 개발, 문화사업 기획 등과 같은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j 글로벌한국학과 의 특징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리는 국제적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자, 한국교류·홍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글로벌 한국학과는 많은 수의 외국인 유학생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 입학생을 보면 20명의 한국인 학생과 40명의 외국인 학생이 글로벌한국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글로벌한국학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 많은 수의 외국인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한국학과 의 전공 수업은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조별과제를 진행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 글로벌한국학과 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글로벌 한국학과 전공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한국의 기후, 환경, 생태계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과 함께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산, 강, 해안, 주요 명승지에 대한 현장체험을 통해 외국인 학생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며, 내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인에게 한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효과적 방법을 체득한다.

한류 콘텐츠 입문

세계 속에서 한류의 열풍이 본격화 된 것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이다. 초창기 K-드라마와 K-팝에서 활성화된 것이 한국의 음식과 영화 등 문화전반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수업에서는 한류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전반을 살펴 보면서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여러 산업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한국문학 영역을 시공간적으로 확대하여 세계문학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한국문학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모색한다.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로부터 인도양을 거쳐 대서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을 접할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문학을 아우른다. 세계문학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 안에서 한국문학의 특성을 파악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과정

한국어 3급을 이수하여 글로벌한국학과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의 원활한 대학 수업을 위하여 대학과정에 필요한 주요 언어 습득을 목표로 3학기에 걸쳐 단계별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어울려보다 쉽게 학과 커리큘럼을 이수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어 교육학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한국어가 모국어인 학습자 대상의 국어교육과 구별되는 요소를 살핀다.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이고, 적절한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면서,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해한다.

03

글로벌 한국학과 전망

SJ 향후 학과 전망 및 취업 분야

1.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문화 관련

국내외 한국어강사, 문화관광해설사, 한국문화강사, 다문화강사, 이라닝 교수 설계자, 한국문화및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자, 문학평론가, 문화예술평론가, 문화행정직원, 문화예술기획자, 문화예술 마케터, 연출가, 게임캐스터, 구성작가, 시나리오작가

2. 한국 교류 및 홍보 전문가

여행 상품 개발자, 융합 관광 코디네이터, 호텔 컨시어지, 큐레이터, 여행사 승무원, 체험상품 기획자, 뷰티관광 가이드,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 화장품 브랜드 아티스트, 이미지 컨설턴트, 식업체 매니저, 관광가이드, 푸드코디네이터

3. 대학원 진학

전공 심화 학습을 위한 대학원 진학(문화콘텐츠관련 학과, 문예창작학과, 언론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등), 교직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대학원 진학 이후 대학강사, 중고등학교 교사, 도서관 서사, 작가, 시인 등단, 문화예술 관련 업계 종사

SJ 학과 내 취득가능 자격증 소개

국가 자격 |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민간 자격 | 다문화교육전문가, 한국문화사, 다문화사회전문가

04

글로벌 한국학과 인터뷰

20년도 학회장 3년 차 대학생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년 김민서입니다.

Q.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A. 학과 특성상 글로벌한국학과에는 타 학과보다 재학 중인 외국인 학우의 수가 많을 것이라 예상돼요. 저도 외국인 학우들과 수업을 들은 적이 많은데요, 외국인 학우들과 함께 하는 수업이 타 수업들과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보통 조별 활동이 있을 때는 한국인 학우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소통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타수업보다 금방 돈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인 학우들이 먼저 다가가면 외국인 학우들도 금방 마음을 열거든요.

Q. 글로벌한국학과만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저는 글로벌한국학과만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일단, 신선헌과이고 소수과이기 때문에 학과의 학우들과 비교적 쉽게 두루 두루 친해질 수 있었으며 교수님들께 진심 어린 조언들도 자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학과의 수업이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글로벌한국학과는 '한류와 미디어 콘텐츠', '한국학 국제 교류' 그리고 '한국어 교육' 분야 이렇게 크게 세 영역을 배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학 당시 진로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학 국제 교류' 분야 수업을 들으며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모르는 제 스스로에 대해 많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Q. 가장 인상깊은 수업은 어떤 것이었나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학 국제 교류' 분야 수업을 통해 진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 분야 수업 중 김봉근 교수님의 '한국의 철학과 종교' 수업을 가장 인상 깊게 수강했어요. 사실, 이 수업은 타 수업보다 난도가 있는 수업이에요. 비단 한국의 철학과 종교만을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를 함께 배우고 이를 비교하며 깊이 있게 다루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 수업을 즐겁게 수강할 수 있었던 것은 조별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직접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수업 덕분에 한국의 철학과 종교가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어요.

Q. 어떤 사람에게 글로벌한국학과를 추천하나요?

A. 당연한 말이지만, 글로벌한국학과만의 커리큘럼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께 학과를 추천해 드려요. 배우는 수업에 보람을 느끼신다면 즐거운 학과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04

글로벌 한국학과 인터뷰

베트남 유학생 2년 차 대학생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한국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판티리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3년 넘었고 삼육대학교 2학년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고 한국에서 혼자 사는 게 저의 독립심을 키워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글로벌한국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한국에 대한 저의 호기심과 관심은 드라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글로벌한국어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과 한국어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Q.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좋은 점이나 힘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솔직히 말하면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 첫 학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을 포함하는 그룹 실습에서 공부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언어 장벽은 무시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또한, 문화 간의 차이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장벽들 외에도 한국 친구들에게서 아주 좋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당신의 직무 부담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은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학습에 필요할 때 항상 서로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Q. 글로벌한국학과 수업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A. 지금까지 한국어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절대적입니다. 저는 글로벌한국어학과에서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 조직하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말하기 대회, 글쓰기 대회, 골든벨을 울리는 등의 활동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과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수님들의 노고에 가장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글로벌한국어학과를 선택한 것이 옳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본국의 학생들에게 글로벌한국학과를 추천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A. 한 가지는 대학 2학년 때까지 공부한 후 한국어와 역사, 문화, 사람 등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단언합니다. 그리고 제가 글로벌 한국어학과를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들을 하겠습니. 저는 그들에게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선택할 때 유용한 정보를 말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처음에는 항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정말로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엇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어려움으로 시작하고 좋은 결과로 끝나지, 그것이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 챌린지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흥미롭고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글로벌 아티스트 양성 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도 들어봤어?!!

PPT, 영상 등 과제와 함께

다양한 것을 만들 때 사용되는 디자인!

디자인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트앤디자인학과]를 알아볼 때!



01 아트앤 디자인학과 소개

sjj 아트앤디자인학과란?

아트앤디자인학과는 미래지향형 글로벌 감각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국제적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첨단 교육시설과 기자재, 산·학·관 협동의 취·창업전략, 융합·캡스톤 디자인 시스템, 아트·디자인 상설 전시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미술콘텐츠 분야를 융합한 교육으로 졸업 후 진로의 폭이 넓습니다.

sjj 아트앤디자인학과 교육목적

국한의 상상력을 동원한 현대적 창조력과 첨단 디자인을 융합한다.

1. 확고한 삼육 인성 교육, 높은 지성과 이론, 숭고한 감성과 창의성 고취
2. 미래지향형 글로벌 감각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양성
3.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제 예술, 교육 교류
4. 산·학·관 협동의 취업·창업전략, 전술구비
5. 융합캡스톤 디자인 시스템 구축
6. 지역사회, 소외 계층 문화 소통의 아트월리스 플랫폼 특성화
7. 첨단 아트·디자인의 산업화를 위한 '미디어 융합 인재' 양성
8. 극진한 사랑과 행복으로 교육시키는 힐링 아트·디자인 교실 구현

sjj 아트앤디자인학과 특징

아트앤디자인학과는 확고한 삼육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높은 지성과 이론, 숭고한 감성과 창의성으로 미래지향형 글로벌 감각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국제적 연구 경험과 실전 감각의 교수진, 국제 예술·교육 교류, 첨단 교육 시설과 기자재, 산·학·관 협동의 취업·창업 전략, 전술, 융합·캡스톤 디자인 시스템, 아트·디자인 상설 전시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고, 특히 학생에 대한 가족과 같은 극진한 사랑과 열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융합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미술콘텐츠 분야가 합하여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어, 학생 진로의 폭을 더욱 다양하게 넓히는 특징점이 있습니다.

02

아트앤 디자인학과 전공



미술 감상과 비평

현대미술 감상 포인트를 짚어봄으로써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비평태도, 관련 이론, 기술 등 감상 및 비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고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비평가(에디터)들에게 현대미술계와 비평계의 현주소를 알려주고 실제 직업적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광고 사진

광고 사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직접 제시하는 모든 표현, 즉 상품의 모양이나 색, 조명 그리고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사진으로 표현 수단이다. 사진의 이론학습과 촬영을 통해 이 문제를 연구한다. 사진 전반에 걸친 이론적 강의와 자유롭게 스튜디오와 야외촬영에서 패션 제품 창작 concept을 설정하여 현대적 사진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는 디지털 체계를 이용한 문자와 기호를 운용하는 고급 디자인인 타이포그래피 습득을 통해 글꼴, 레터링, 그리드 등 기초 체계, 실험적 타이포그래피로 일컬어지는 심화된 작품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응용체계를 공부한다.

아트앤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션은 책의 이야기를 보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삽화에서 시작되어 발전되어온 내러티브를 통한 시각적 소통의 매체로서 해석될 수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되어온 시각적 소통의 개념과 방법론을 학습하고 이를 응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시각적 소통 방법론을 발전시키게 된다.

사회적 기업과 디자인

디자인 관련 업체와 학과 간 협력을 통한 실무 및 작품 제작,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정한 업체와 전공별 교수들의 산업체 추천과 자신의 취업, 창업에 위한 노력과 정보 공유를 실현하여 바람직한 작품 제작 및 진로를 결정하게 한다.

03

아트앤 디자인학과 전망

sj 향후 학과 전망 및 취업 분야

비전 | 아트&디자인학과는 확고한 삼육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높은 지식과 이론, 숭고한 감성과 창의성으로 미래지향형 글로벌 감각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를 양성합니다.

1. 시각·그래픽

그래픽디자이너, 편집디자이너, 아트디렉터, 광고디자이너, 홍보디자이너, 컬러리스트, 아이덴티티디자이너, 브랜딩디자이너, BX디자이너, 패키지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디자이너

2. 전시·공간

전시디자이너(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익스테리어디자이너, 인테리어디자이너(시각디자인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테마파크디자이너, 환경디자이너

3. 그 외 다양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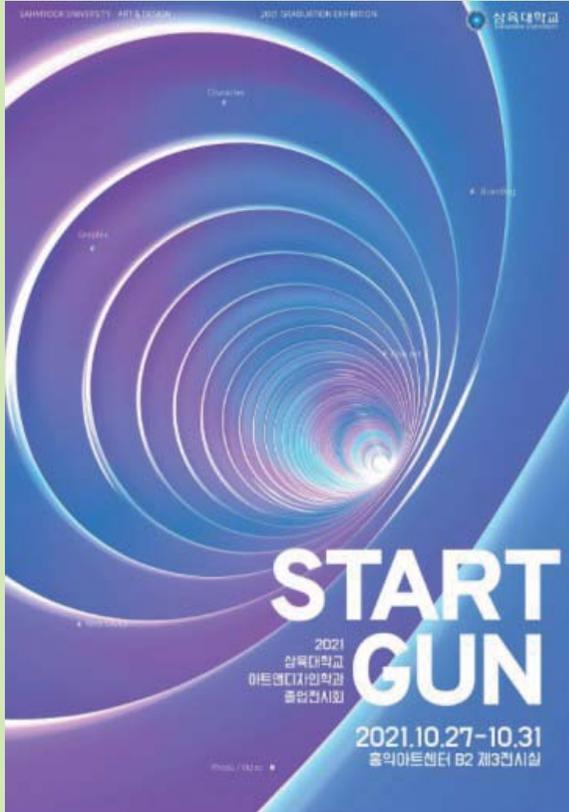
문화상품디자이너, 비주얼머천다디저, 텍스타일디자이너, 게임그래픽디자이너, 애니메이션, 디자인학원강사, 디자인 교원, 모션그래픽디자이너, 가상현실 디자이너, 전업작가, 문화경영, 문화예술강사, 문화콘텐츠기획자, 공공예술단체, 박물관의 큐레이터, 디렉터, 디자인연구원, 웹디자이너, 앱디자이너, 인터페이스디자이너, 유명 대학원 진학

sj 학과 내 취득가능 자격증 소개

국가 자격 |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GTQ,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활용능력, 컴퓨터운용능력,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게임그래픽전문가, 그래픽기술자격,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문화예술경영사, 사진촬영사, 학예사, 미술치교사(2급), 아동미술교육자(1급)

04

아트앤 디자인학과 전시회



[스타트건 포스터]

Sij 아트앤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2021년 삼육대학교 아트앤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의 주제는 STARTGUN | 스타트건입니다. STARTGUN은 달리기를 하기 전 출발선에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졸업전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순수예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과로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방향의 앞날을 준비합니다.

이 학과 안에서 우리는 Branding, Character, Fine Art, Graphic, Photo/Video, Web/UX/UI 6개 분야로 진출합니다. 새로운 형태로 각자 다른 분야를 준비해 온 학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밝은 앞날을 향해 시점을 통해 보여주며, 원의 중첩된 이미지는 한 층씩 쌓아 올린 우리 노력의 흔적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84명의 아트앤디자인학과 학우들이 밝은 미래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전시합니다. 각자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는 스타트건의 소리를 함께 들어주세요.

04

아트앤 디자인학과 인터뷰

아트앤디자인학과 재학생 인터뷰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아트앤디자인학과 3학년 이하연입니다.

Q. 다른 학과에 없는 학과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선 높은 미술 실기력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삼육대학교의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실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독 실기에 강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고 그만큼 작품 퀄리티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만의 스타일과 색이 강한 친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Q.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1개만 소개해주세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1,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아작(아간 작업)을 하던 순간인 것 같아요. 과방에서 밤을 새가며 친구들과 작품 작업을 하고는 하였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덜덜 떨면서 서로 웅기충기 모여 과 돛바를 덮고 잠깐 눈을 붙이고는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그런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Q. 학과 특성상 과제가 많은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과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영상제작' 수업 때 과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영상을 제작하는 수업이었는데, 조원을 짜고 난 후 주제 선정과 연기, 촬영, 편집 등 모든 기획 과정을 조원들과 의논해가며 영상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었습니다. 디자인과라고 해서 무조건 손이나 컴퓨터로 그리는 것이 아닌 직접 발로 뛰며 연기도 하고, 촬영도 하는 등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좋은 팀원들을 만나 좋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 파티룸도 빌리고 분장도 해가면서 즐겁게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과제라기보다는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Q. 과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는 않은 지 궁금합니다. 부담감이 있다면 부담감을 이겨내는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A. 저 같은 경우에는 경쟁심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뒤처지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지 작품이 잘 안 풀릴 때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고는 하였습니다. 디자인은 아무래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동기들의 작품과 제 작품을 비교하게 되고 평가 아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 작품이 맘에 들지 않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땐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을 이겨낸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닌 그냥 작품을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는 것이었습니다. 첨부해 계속해서 맘에 들지 않는 작품은 질질 끌고 가봤자 마지막까지 맘에 들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도중에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주제를 변경하여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고는 하였습니다. 몸은 힘들지라도, 결과물은 전보다 훨씬 만족스럽게 마무리되던 것 같아요. 가끔은 뒤엎을 용기와 과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D

Q. 마지막으로 아트앤디자인학과에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입학 후 처음에는 접해보지 않았던 디자인 프로그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저랑 제 친구들 모두가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모르는 건 선배에게 물어보고 친구들과랑 머리 맞대 가며 끈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제도 좋지만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랑 학교 생활하며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학과를 연계한 한류콘텐츠 연계전공도 소개시켜줄게!!?

글로벌한국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 식품영양학과

세 가지 학과의 수업을 모두 들을 수 있는 학과가 있다고?!

한류에 관심 있다면 [한류콘텐츠연계전공]에 관해 알아볼 때!



01 한류콘텐츠 연계 소개

sj 연계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부)가 학문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공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다양성과 통합성을 지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연계(융합)전공에 개설된 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면 복수학위가 수여됩니다.

sj 한류 콘텐츠 연계전공

오늘날 한류 열풍은 국경을 넘어 경제·사회·문화·예술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K-Pop·K-Drama·K-Movie·K-Food·K-Design 등 문화전반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한류콘텐츠 연계전공을 수강한 학생은 지구촌 곳곳에서 전개되는 한류 현황을 알 수 있으며, 한류 콘텐츠가 여러 산업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류콘텐츠 연계전공은 국내외적으로 한류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류에 기초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운영될 것입니다.

연계학과 | 글로벌한국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 식품영양학과

sj 한류 연계전공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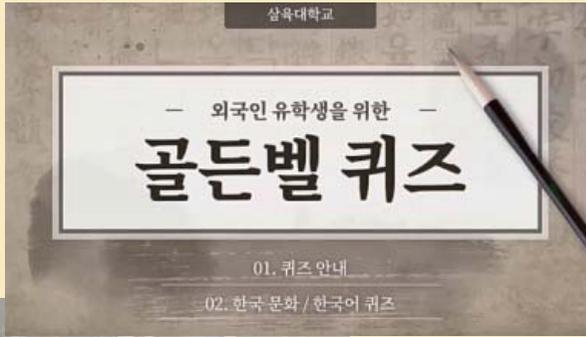
- ① 필요성 및 목적 : 한국학 연구 가운데 한류 문화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수업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한류 콘텐츠 관련 진로를 계획하는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함
- ② 주요내용 : 한류 문화 콘텐츠를 글로벌한국학과와 미디어 콘텐츠학과, 식품영양학과가 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이 한류 콘텐츠의 구체적 영역을 다양하게 체험하게 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
- ③ 세부과제 및 추진시기 : 2019년 2학기에 3개 학과와 협력하여 연계전공 과정을 완성하였으며, 2020년부터 연계전공자를 모집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함
- ④ 기대효과 : 한류 문화 관련한 콘텐츠 인재양성에 든든한 기초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줌

sj 졸업 후 진로

방송영상콘텐츠 기획, 한류 콘텐츠 제작 전문가, 미디어콘텐츠제작, 외식산업체, 일반기업체, 언론기관, 교육기관, 한국 교류 전문가, 문화예술위원회, 기획사 및 콘텐츠 개발 창업 등

02

한류콘텐츠 연계 축제



Su 한류페스티벌

1. 필요성 및 목적

한류 문화 연구에 관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학문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류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함

2. 주요 내용

한류 관련 국내외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함과 동시에 한류 연계전공과 관련하여 한국어 영역, 미디어 콘텐츠 영역, 음식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운영함

3. 세부과제 및 추진시기

매년 5월 혹은 10월에 국내외의 한류 연구자들 초빙 및 교내 한류페스티벌 축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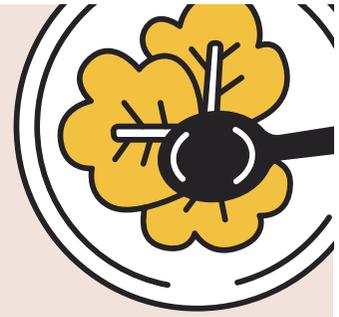
4. 기대 효과

학생들의 한류 문화 연구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한류 콘텐츠 전문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줌

interview

우리대학을 빛낸 삼육인

식품영양학과 학생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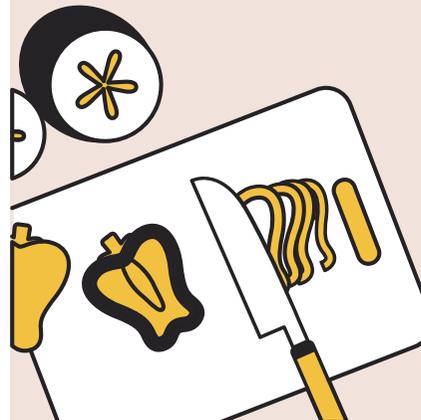


천현진

(중국어학과 4학년, 식품영양학과 복수전공)

식품영양학과는 '무병장수', '백세시대'의 사회상에 발맞춰 식품 및 영양에 관하여 연구하고, 영양학의 선구자를 육성한다. 4년간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전문인으로서의 모습을 자아낼 수 있도록 한다. 전공생은 주로 영양사와 위생사면허증, 식품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교육연구 및 정책, 식품영양 연구, 전문영양사 및 영양정보 분야 등의 진로를 가질 수 있다.

지난 10월, 우리 대학을 빛낸 식품영양학과 학생팀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천현진(4학년), 한태완(3학년), 한재민(3학년) 학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개최한 '제5회 FIS를 활용한 식품외식산업 대학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학생팀은 대회를 통해 대체 감미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한다. 프로젝트의 과정과 자세한 내용은 팀원인 천현진 학우와의 인터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이번에 활동하신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현진 : 식품외식산업과 관련된 논문 경진대회예요. AT(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고, 외식산업에 관한 아이디어나 연구개발의 내용을 논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정현 : 현진님 팀에서 제출하신 논문을 봤어요. 마크를 이용해서 해당 식품이 혈당을 많이 올리게 되는 식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아이디어가 제안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맞나요?

현진 : 네, 맞는 한데 더 보충하자면 소비자가 감미료의 각 기능적 특성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예요. 단맛을 내는 첨가물을 모두 감미료라 칭하고, 설량 외에도 종류가 다양해요. 각 기능적 특성도 다르죠. 그런데 감미료의 종류가 계속 다양해지고 있어서 그 기능적 특성을 일반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표시제를 제안하게 되었어요.

“경진대회 참가 동기는 무엇인가요?”

현진 :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 얻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 단 음식을 좋아하셔서 대체감미료를 사용한 음식을 만들어 드리곤 했었어요. 한편, 올해 코로나로 인해 다이어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 대체감미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했어요. 트렌드에 따라 어머니께 성분표를 보고 혈당을 최대한 적게 높이는 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바쁘고 눈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가 작은 글씨들을 보고 구분하시기는 어려웠어요. 이에 어머니가 한 눈에 구별하실 수 있는 표시마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 소비자 또한 이를 잘 구별할 수 있었으면 해서 ‘스위트너 마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어요.

· 논문요약 자료 - 연구배경

1) 연구배경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저당, 저칼로리 소비트렌드가 나타나며 아스파탐, 알룰로스 등 대체감미료를 사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출시

(문제) 하지만 소비자들의 감미료 식별능력은 매우 낮아 뒷면에 표기된 감미료의 명칭만으로 감미료를 구별할 수 없기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다양한 감미료에 노출됨

따라서 소비자가 감미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감미료의 기능을 구분하여 원하는 감미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트너 마크’라는 감미료 표시제를 제안



<논문요약 중 연구배경에 관한 내용>

“활동과정을 알고 싶어요. 또한 활동 중에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면요?”

현진 : 활동기간은 총 두 달 반 쯤이었고요, 처음에는 논문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주제를 정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커다란 과제였어요. 같은 주제라 해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쓰느냐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진짜 미묘하고 어려웠어요. 특히 대체 감미료의 부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에 대해 고민이 깊었어요. 이렇게 방향성 잡는 것으로만 한 달 반이 지나갔고, 글을 쓰는 것은 오히려 적게 걸렸어요.

설문조사도 만만치 않았어요. 당시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팀원들 일정이 바빠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에 부담이 있었어요. 최소 200명에게 조사해야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끝내 최소치 이상을 조사하긴 했지만 아쉬움이 남아요. 30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질문자분들을 따로 모집해서 설문을 해야 했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갈 수 없었던 문제도 있었네요.

정현 : 저도 전공 과제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현진님과 팀원들께서 하신 설문조사보다 스케일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조사자를 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간접적으로 느껴지네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싶어요.



· 논문요약 자료 - 설문조사

3) 설문조사 및 실험

마크의 시장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마크기대효과 조사’와 ‘일반인 이해도조사’를 진행함

[마크기대효과 조사]

설문조사 대상 : 감미료 관심도에 따라 일반인 집단 (195명), 특정한 집단(25명)(혈당질환 환자)

설문조사 목적 : 표시제의 기대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함

설문조사 내용 : 대체감미료에 대한 인지수준 확인 및 ‘스위트너 마크’에 대한 기대효과조사

결과 :

- 대체감미료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인(64%), 특정한인(84%)
- 마크의 기대효과에 대해 일반인(86%), 특정한인(84%)가 긍정적인 응답

<논문요약 중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현진 : 일단 방향성 부분에서는 교수님과 계속하여 의논한 뒤에 결정을 했어요. 주제를 크게 바꿀 수는 없어서 대체 감미료의 부작용 언급은 최대한 생략하는 방향으로 정했죠. 내용은 중립을 유지하는 입장으로 썼어요. 대체재가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요. 대체제의 단점을 쓴다면 장점도 같이 쓰는 식으로 중립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은 서론 쪽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연구보다 아이디어 제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논문을 쓰면서 본문 쪽에 힘을 더 썼어요. 또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실험들도 추가해서 아이디어의 실용성 측면을 보완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했는데, 대신 인터뷰 카페 채널을 통해서 질한자분들에게 설문에 응해 달라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 일반인 이해도 조사

실험 대상 : 앞서 조사한 기대효과에서 대체감미료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일반인(24명), 10대(3명), 20대(7명), 30대(5명), 40대(3명), 50대(6명)

실험 목적 :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크의 체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

실험 내용 : 마크의 체제를 약 3분간 한번 설명 후 질문을 받지 않고 모의문제 제시. 스스로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체제에 관한 기대효과조사

결과 :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에 걸쳐 모두 만점에 가까운 이해도를 보임

결론 : 스위트너마크가 실제 시장에 적용 시에도 일반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예상

<논문요약 중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낸 성과는
무엇인가요?”**

현진 : 소비자의 대체 감미료 인식과 교육 체제에 관한 연구나 논문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상을 받게 된 것이 저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 감미료에 관해서는 대부분 감미료의 개발이나 적용성, 기능적 결과밖에 없어요. 열에 대한 반응, 떡이나 빵으로 만들었을 때의 결과물 같은 거요.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연구나 논문 외에 대체 감미료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관련 내용을 새롭게 다룬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아이디어가 작성한 논문 속 기대효과대로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성과는 인턴 가산점이에요. 저는 원래 이공 AT의 인턴을 목표로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AT 논문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청년 인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 계기가 되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기뻐요.

• 논문요약자료 - 마크제안

2) 마크제안

‘스위트너마크’는 **혈당에 미치는 수준과 원료**를 기준으로 마크의 색과 삽입되는 그림을 통해 현존하는 모든 감미료를 구분한다.

(마크의 체제) **혈당에 미치는 수준**에 따라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열량의 감미료는 주황색**으로 표기하고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열량의 감미료는 초록색**으로 표기한다. **원료**를 기준으로 **천연 감미료는 나뭇잎모양**을 삽입하고 **인공감미료는 큐브모양**을 삽입한다.

(우선순위) 감미료가 복합적으로 쓰였을 시 **혈당에 기준으로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감미료를 우선**으로 표기하고 **원료를 기준으로 인공감미료를 우선**으로 표기한다.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공감미료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천연감미료

<논문요약 중 마크제안에 관한 내용>

**“수상자로서 수상에 대한
팁을 알려주세요.”**

현진 : 발표 준비에 공을 들인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공모전 심사는 80편 이상의 논문 중에서 적용성, 논리성 등의 기준으로 10편을 추려내고, 그중에서 최종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최종 심사는 논문 심사 점수와 별개 된 발표로 평가되었는데, 저희 논문을 처음 보시는 연구원, 기업종사자, 교수님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저희가 논리적으로 대답을 잘 하는지를 보시고 점수도 매기셨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다른 팀보다 더 잘 준비해서 다른 분들 보다 제가 발표를 잘 했어요.

정현 : 아, 그런가요? 말씀을 들으니 발표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진 : 어려웠어요. 저희는 논문도 처음 써보는데 논문에 대한 발표도 처음이었으니깐요. 학교 발표도 떨리는데 많은 심사위원님들이 계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 엄청 떨렸어요. 다른 발표자들 중에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안 들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점수를 더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대본을 다 외우고 간 것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심사위원님들의 눈을 마주치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했어요. 당시 외우고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는데, 그래서 점수를 더 받는 것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식품영양학과 학생분들께 추천하는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등의 대외활동이
있나요?”**

현진 : 특히 공모전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연구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기관이나 공사에 서 매년 공모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AT에서는 YAFF라는 식품 관련 서포터즈를 운영해요. 특히 저학년 분들이라면 이 서포터즈에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현진 : 다들 어렵다,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대회가 전국적으로 하는 대회잖아요, 논문 자체도 어려운데 논문경진대회라고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또 최우수상은 한 팀뿐인데다 상금이 300만원이니 하늘에 별 따기 같다고 여겨지는데, 저는 일단해보자는 생각으로 했어요. 논문을 써본 적이 없었고, 4학년 막학기에 인턴이랑 한국사 시험도 병행하는 상황이었어요. 시간을 쪼개면서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힘투기는 했지만 결국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이런 저도 했는데 다른 분들이라면 더 잘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예요. 그러니 안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도 좋을 것 같고, 무엇이든 꼭 뚜렷히 봤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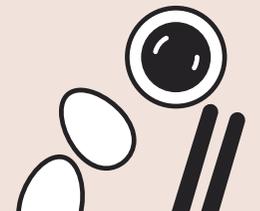
정현 : 무언가를 이뤄내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계신 학우님들께 큰 힘이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4학년 막 학기이고, 내년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진님의 활동 사례와 이 말씀이 동기부여가 되는군요.

현진 : 사실은 4학년이 되어서야 스펙을 쌓아보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많은 일들을 몰아서 해 봤어요. 물론 힘들긴 했지만 결국 모두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주변을 보면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나, 무슨 공기업이나 하는 말들을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현 : 그렇죠, 걱정하기 전에 뚜렷하게 게 먼저가 아닐까...

현진 : 맞아요, 정말 정확해요. 제 말의 요지예요.

정현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인터뷰 내용으로 꼭 담아야겠네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이구동성)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대학이 제시하는 6대 핵심역량인 ‘시민의식, 소통, 창의적사고, 자기주도, 글로벌, 나눔실천’ 중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진님에게 있어 어떤 역량이 강화되었나요?”

현진 : 자기주도와 창의적사고 역량이에요. 공모전 활동은 제가 스스로 찾아야 하잖아요. 자기자신이 스펙을 쌓고 싶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4학년 까지 지낸 입장에서 되돌아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찾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처음이었는데, 심지어 저는 복수전공생이라 교수님을 찾아뵙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매번 교수님을 꼭 뵈려고 노력했고,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여쭙보는 것들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들 속에서 스스로 해낸 만큼 성장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이 자기주도 역량을 끈게 된 이유예요. 그리고 논문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들은 대부분 아이디어에 해당해요. 다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 내용이 많은데, 제가 복수전공생이라 창의성으로 강점을 살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되어 아이디어와 본론에 힘을 주었어요. 이 부분은 창의적사고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현 : 그렇군요. 저는 특히 창의적사고 부분에서 공감을 하게 되네요. 인터뷰 전에 논문 속 감미료 표시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나서 흥미를 느꼈어요. 식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한 눈에 보기 쉬운 감미료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건강관리 측면에서 분명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감미료 표시제 마크를 직접 구상하고 디자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효용을 주는 방법을 고안하고 실현하신 과정에서 창의적사고가 발휘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 논문요약자료 - 기대효과

4) 기대효과

1. 혈당관련 질환자 혹은 체중조절자 등에 효과적으로 감미료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2. 일반인의 감미료인지 및 정보습득에 효과적이며 감미료 교육체제의 기초도구로 활용기대
3. 감미료 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

<논문요약 중 기대효과에 관한 내용>



인터뷰를 진행하며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 답변을 듣는 동안 천천히 학우를 비롯한 학생팀이 이 프로젝트에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외에도 학우들에게 전하는 동기부여 또한 인상 깊었다. 대회와 논문을 통해 제안된 ‘스위트너 마크’가 실용화되어 우리 곁에 있게 되는 날을 기대한다. 그리고 학생팀이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 식문화발전에 기여하게 된 만큼, 각자의 커리어에도 빛이 있기를 응원한다.

우리학과의 전공필수!
경영학과



학과로고

학과 인재상

모집 인재상

- 시장에 대한 통찰력과 도전정신을 갖춘 학생
- 글로벌 시장에 뜻을 펴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
-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융합하는 역량을 갖춘 학생
- 윤리의식과 사회봉사 정신을 갖춘 학생

목표 인재상

-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세무 전문가
- 시장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성을 갖춘 마케팅 인재
- 도덕성과 뛰어난 재무역량을 지닌 금융 인재
- 전문역량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경영 Generalist

경영학과는 조직이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과정으로서 기업의 재무, 회계, 마케팅, 인사, 생산,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 관련 자격증으로 공인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있으며, 졸업 후 주로 기업체에 종사하거나 상기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한다. 우리 대학의 경영학과는 특히 회계세무 전문가 양성에 강점을 두고 있다.

재학생 중 경영학과 복수전공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만큼 경영학과 복수전공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 또한 많다. 이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경영학과 복수전공 시 수강해야 하는 전공필수 과목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수강 팁을 준비했다. 경영학과 교님과 학우들의 이야기, 경영학과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경영학과 신입생도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 7월, 전공필수 과목이 6과목에서 5과목으로 조정되었다는 학과 공지가 있었다. 생산관리 과목이 제외되었으며, 적용시점과 대상은 2022년 2월 졸업생부터이다.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고 한다. 경영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이니 꼭 확인하여 수강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전공필수 과목 변경

▶ 경영학과 전공필수 과목 안내

전필과목 안내 (전공필수과목)

※ 2022년 2월 졸업부터

- 핵심전공 5과목 (모든 과목 의무 이수)

마케팅원론 / 회계원리 / 재무관리 / 조직행동론 / 경영정보론

2022년 2월 졸업부터 전필에서 ‘생산관리’ 제외

<경영학과 전공필수 과목 변경 안내문>

• 전공필수 과목 소개 및 수강 팁

01. 회계원리 I (Fundamentals of Accounting I)

재무회계의 기본적 개념들을 배우며 특히 회계과정과 재무제표의 내용 및 작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연습 문제들을 풀어 봄으로써 실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TIP 이 과목과 더불어 회계 관련 과목은 한 학기에 하나씩만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회계 과목 특성상 퀴즈 시험을 자주 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수강하면 매일 시험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경영학과생이라면 무조건 1학년 때 듣자. 경영학과는 복수전공생, 부전공생이 많기 때문에 전필과목의 수강신청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이 과목은 1학년만을 위한 강의와 다른 학년+복수전공생 강의로 따로 개설하기에 비교적 수월한 신청이 가능하다.

02. 재무관리(Corporation Finance)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본 규모의 결정, 그 조달방법, 시기를 계획하고 조달된 자금의 최적운용 및 관리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연구한다.

TIP 수강 전 회계원리 I 을 꼭 선행해야 수업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경영통계학과 투자론을 선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무엇보다도 연습과 복습이 생명인 과목이다. 강의 중에 배우는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놓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교수님께 꼭 여쭙아서 이해하도록 하자. 경영학과생, 복수전공생을 위한 강의로 나누어 개설되니 참고하여 수강신청을 하면 된다.

03. 경영정보론(Principles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조직의 개념, 구조, 계획, 개발, 운영, 평가, 통제과정을 다루며, 경영정보시스템이 기업경영과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의한다.

TIP 사례 형식으로 전개되는 내용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강의 중 교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PPT 자료와 함께 한 권 이상의 책이 시험 범위인데, 책에서 나오는 문제의 비중도 있음을 참고하길 바란다.

04. 마케팅원론(Principles of Marketing)

현대 기업에 있어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마케팅 전략도구인 제품, 가격, 경로, 촉진전략과 연계하여 기업 경영적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연구한다.

TIP 마케팅 이론은 경영학의 다른 과목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자주 다루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잘 배워 두는 것이 유리하다. 마케팅전략, 마케팅조사론 등 관련 과목들과 함께 수강해도 좋다.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05. 조직행동론(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 내에서 인간의 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 조직 전체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 특히 조직 내에서 인간의 만족과 조직의 목표를 통합하려는 구체적인 기법에 대하여 이해시킨다.

TIP 이론의 양이 상당한 만큼 암기를 잘 할수록 유리한 과목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잘 맞는 암기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물론 각자 추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그중 하나로 두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론에 스토리를 대입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목차나 주제별로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사연 내지 사례로 관련지어 공부하니 시험 때 쉽게 떠올려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Sij With. SUtory
필로그



교육혁신원
비교과통합센터